

제9대 총장선출 돌입... 내달 16일까지 공모위 구성

총장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꾸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제9대 총장을 선출을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

교원 17명, 직원 2명으로

총장 추천관리위원회 구성

송석연(교수회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9명이 지난 5일 발표했다. 총장추천관리위원회는 교원 17명, 직원 2명으로 임명됐다. 교원위원들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 교수회의를 통해 선출됐다. 직원위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추천받아 임명됐다.

총장추천관리위원회는 총장임용 후보자 선출의 중추역할을 맡는다. 총장추천관리위원회는 총장공모 지원자를 심사하는 '총장후보자공모위원회'와 학내외 위원들의 투표로 최종 총장임용 후보자를 선택하는 '총장추천위원회' 두 개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일종의 선거관리위원회인 셈이다. 또 총장후보자 공모위원회에서 최종 선택된 총장임용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하는 곳 또한 추천관리위원회이다.

총장추천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교원위원=△김치완(철학과) △김진호(정치외교학과, 부위원장) △임화순(관광개발학과) △이상철(과학교육과) △송광경(생물산업학부) △조은일(환경공학과) △강창희(화학과) △김호찬(전기공학과) △고경희(초등교육과) △우호준(수학과) △김문정(간호학과) △박성진(미술학부) △김중섭(통역대학원한중과) △김봉수(의학전문대학원의학과) △이창섭(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김성봉(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송석연(교수회장, 위원장) ▲직원위원=△진순화(경상대학 행정실장) △이창수(경영사업단)

공모위원회, 내달 16일까지 구성
총장후보자 공모, 자격심사

총장추천관리위원 중 9인으로 구성되는 총장후보자 공모위원회는 총장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지원서를 받고 자격심사를 한다. 공모위원회는 현 총장 임기만료일(내년 2월 16일)로부터 6개월 전인 다음달 16일 전까지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공모위원회는 총장후보자 공개 모집에 관한 공고를 총장 임기만료일 4개월 전, 오는 10월 16일까지 발표한다. 공모위원회는 교원위원 8명과 직원 1명으로 추천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총장 지원희망자는 학내인사뿐만 아니라 학외인사도 지원이 가능하다. 학내에서는 제주대에서 10년 이상 재직중인 자로 전임교원 20명의 추천을 받고 공모기간 내에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제단에 2000만원을 납부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학외인사의 경우 박사학위(명예박사학위 포함) 소지자 이면서 전임교원 20명의 추천을 받고 공모기간 내에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제단에 2000만원을 납부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후보자추천위원회
총장임용 후보자 최종 2명 선정

공모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총장 후보자들은 추천위원회로 넘겨져 두



지난 11일 오후 3시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공모에 의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및 시행세칙 보완 사항 연구'에 대한 공청회가 교수회 주축로 열렸다.

표를 통해 최종 2명을 선정한다. 공모 지원자 접수 마감 후 20일 이내에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는 학내위원 36명 학외위원 12명으로 총 48명으로 구성된다.

학내위원은 교원 31명(여성 4명 포함), 직원 4명(여성 1명), 학생 1명으로 이뤄진다. 학외위원은 평의회에서 추천하는 5명(여성위원 2명 이상 포함),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여성위원 1명 이상 포함), 기성회이사회가 추천하는 2명(여성위원 1명 이상 포함), 총동창회가 추천하는 2명(여성위원 1명 이상 포함),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1명으로 구성된다. 총장임용후보자는 추천위원회 구성 직후 이뤄지며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 등을 개최한 후 표결로 선정한다.

추천위원회 재직위원 2/3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하다. 재직위원 과반수 득표자와 자승인 득표자로 총장임용

후보자를 최종선정하게 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3인에 대해 재투표가 이뤄진다.

총장임기 만료 60일 이전

후보자 최종 2인 교육부에 추천

최종 선정된 2명의 총장임용 후보자를 현 총장 임기만료 60일 전(12월 16일)까지 교육부 장관에 추천한다. 교육부는 두 명의 후보 중 한명을 뽑게 된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법전원 대강당에서는 '공모에 의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및 시행세칙 보완 사항 연구'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시행세칙 등의 미비로 구체적인 사항의 보완 없이 총장임용 선정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데 따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위원들은 총장 선출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규정과 세칙의 보완안을 발표했다.김명지 기자

잇따른 사업비 지원대학에 선정

교육역량사업 6년 연속... 내달 지원규모 확정 발표

제주대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에 6년 연속 선정됐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지난 9월 1차 선정대학을 확정·발표했다. 1차 선정대학에는 제주대가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전국 150개 대학(분교 포함 15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상위 72개교에 대해선 1단계 평가결과를 토대로 이달말 이전에 지원예산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대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시작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부로부터 총 162억5000만원

을 지원 받았다. 제주대 관계자는 "6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에 선정된 것은 학생들에 대한 제주대의 교육여건 역량이 높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교육투자비율,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 등 대학의 교육역량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로 지원 대학을 선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상은 교육여건 및 성과를 나타내는 정량평가를 통해 상위 72개교를 확정했고, 그 중에 제주대가 지원대학으로 최종 확정됐다.

교육역량강화사업 정부 지원금은 교육 특성화 및 여건 개선 등 교육 인프라 확충과 국제화 및 재학생 취업을 향상을 위한 교육투자

에 사용된다. 기획평가과 관계자는 "8월 중순 경으로 지원규모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에 선정... 전국 3개 대학만

제주대가 지난 8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TU, Global Teacher's University)' 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 지원 사업은 국제화와 다문화 등 국내 교육환경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한국 교원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지난해 경인교대 한 곳에서만 진행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제주대는 수학, 과학교과 등의 학부 및 대학원 과

정에 글로벌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미국 보이스 주립대학 등과 공동 교과과정 운영 및 복수 학위 운영 및 해외 교사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와 연계해 해외교육실습 및 양방향 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승희 기획평가과장은 "우리 대학의 강점과 제주지역 특색을 살린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거점대학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교원을 양성함으로써 일선 초·중등 학교 현장의 국제화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지원 받는 1억9000만원과 자체예산 1억3000만원을 들여 총 3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진행한다. 앞으로 글로벌 교원연수센터가 유치되면 지원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화여대, 부산대, 한국교원대, 공주교대 등 전국 9개교 교원양성대학이 지원한 이 사업은 서면과 발표 심사를 통해 제주대와 경북대, 한국교원대 등 3개 대학만 최종 선정됐다

강경태 기자

학생회,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규탄 성명 발표

2일 "철저조사와 책임자 처벌" 촉구

제주대 학생회의 최고결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위원회)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와 사건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2일 제주대 자유게시판 등을 통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과 경찰 축소조사에 대한 제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성명서'

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가권력 기관으로부터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는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등 중앙자치기구와 교육대학을 제외한 12

개 단과대학 학생회가 참가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정치문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명백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위원회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의 기소만으로 사태가 마무리 될 수 없다"면서 국민들의 주권이 행사되는 선거에 개입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짓밟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이 합당한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정원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번 국정조사에서 개혁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 사건 의혹과 검찰, 경찰의 축소조사 의혹에 대한 확실하고 조사를 적극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명지 기자

호주·피지 해외취업지원사업 연수생 모집

취업전략본부(본부장 임재운)가 2013년 미취업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외취업지원사업 연수생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오는 19일까지 2013년 8월 졸업예정자 및 2014년 6월 이

상 장기 취업희망자를 우선 선발한다. 이번 연수는 호주 또는 피지에서 진행된다.

2013년도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취업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실시되는 호주연수는 8명을 모

집한다. 또 2013년도 해외취업 연수사업(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을 통해 실시되는 피지 연수는 14명을 선발한다.

이번 선발은 전공성적, 어학능력, 취업 가능성 및 면접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발한다.

문의=취업전략본부(전화 754-2309)

백록문학상 || 소설 당선작 '경마장 밑바닥' 4·5면 | 시 가작 2면 6면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Center for ZAINICHI JEJU People

재일제주인과 함께 하는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재일제주인센터는 재일제주인의 삶과 역사를 새로이 조명하여, 그들의 개척정신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고자 합니다. 제주도민과 재일제주인과의 교류와 소통의 중심 역할은 물론, 재일제주인·재외한국인 연구의 중심 센터가 되겠습니다.

재일제주인과 함께 새 역사의 장을 열어가는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홈페이지 주소 : <http://zainichijeju.jejunu.ac.kr>
전화번호 : 064)754-3975~3978
팩스번호 : 064)724-8855

사 설

법치주의와 권력의 논리

- 총학생회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규탄성명 발표에 부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치국가에서는 합리적인 법률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가권력은 정당성을 가진다. 이러한 통치형태가 가지는 장점 중의 하나는 정치적 행위와 결과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높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된다고 해도 권력을 가진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부를 가진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은 나뉘 수밖에 없다. 예외 없이 권력과 부는 결합한다.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불평등에 민감한 사람들이다. 그런 만큼 사회에 비판적이다. 지식인들의 공동체인 대학, 특히 예비지식인으로서의 대학생들이 불의와 불평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언제나 '갑갑한 밤의 침묵에 자유의 종을 난타' 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불행히도 원리로서의 법치국가가 현실에 존재한 적은 없다. 법치의 목적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의 법치국가들에게 목적은 중요하지 않았다. 권력과 부를 나누어 가지고 농단하는 것을 기릴 수 있는 그럴듯한 절차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절차가 아닌 목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부정하는 사회의 적으로 규정당하기도 했다.

지식인 집단의 비판은 이러한 부당함을 고발하는

목소리였다. 그러나 또 하나의 불행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다. '자유의 종을 난타'하기를 자임했던 4.19의 젊은 학생은 장년이 되어 독재정권의 주구가 되었다. 목숨을 걸고 광주 '항쟁'의 유산을 지키려했던 80년대 학생들은 권력의 '달콤한 맛'에 도취되어 그들이 비판했던 노쇠한 정치인들을 달아갔다.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국가기밀 공개행위는 '법치'의 논리를 근본부터 흔드는 행위에 틀림없다. 대학교수들과 학생들이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주대 총학생회가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 동참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법치와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비판과 논쟁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역동적 논리이기 때문이다. 지식인 집단의 지속적인 비판을 먹고 자란다. 그런데 지식인들은 법치의 허울 속에 감추어진 권력의 논리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했는가? 권력과 부의 희생자였던 민초들이 불합리와 불평등에 저항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 지식인 집단은 무엇을 했는가? 지식인들의 '비판'도 목적을 상실한 채 '형식'만 남은 것은 아닐까?

이제 젊은 지성은 '형식'만 남은 대학교수들의 비판에 '내용'을 채워 넣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대학생활과 아르바이트

이제 대학캠퍼스의 젊은 열정은 본격적인 여름방학을 맞아 짙은 초록으로 대신한다. 최근 모 아르바이트 전문포털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계획과 아르바이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학생들이 이번 여름방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할 분야에 아르바이트가 52.5%를 득표하며 1순위로 꼽혔다.

'노동·업적'이라는 뜻의 독일어 'Arbeit'에서 유래된 말이 처음에는 학생이나 직업인이 본업 이외의 수입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을 뜻했다. 현재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주부의 시간제 근무 또는 계절적·일시적 형태의 일도 아르바이트에 포함한다. 아르바이트가 약어인 '알바'라고 지칭되기도 하는데 아르바이트가 과거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일부 고학생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경력쌓기, 용돈 마련, 등록금 마련,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학원비 마련, 여행비 마련, 취미생활비용 마련 등 아르바이트 업종은 직업의 종류와 목적이 다양해졌다. 최근에는 정규직 취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평생직장이라는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특정 직종의 획일적인 조직문화에 얽매이기 싫다는 등의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아르바이트가 진화되면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임금관련 문제,

작업장 안전문제, 비인간적 처우 등 부당한 경험을 겪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70%가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자주 불거지곤 한다.

아르바이트 동안에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에 당사자나 관계 기관의 대처는 미흡하기만 하다. 부당한 경험을 겪은 많은 알바생은 묵묵히 참거나, 일을 그만두는 소극적 대응을 하곤 한다. 알바가 하나의 사회경험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고용주에게 시정을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교외문제라 생각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대부분 주요대학은 학생들의 집(방)임차료,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문제 등에 대학에 상주하는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벤치마킹을 해 볼만하다.

아르바이트 참여가 학업소홀, 문제행동 등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직업 경험의 축적, 직업의식의 발달, 사회적 관계경험의 축적 등 긍정적 측면도 많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이다. 아르바이트가 필수인 시대에 부당한 대우에 대한 당사자의 적극적인 대응과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내 법률 구조지원시스템 구축과 홍보도 필요하다.

학생생활관 의무식 개선... ‘주말선택식’ 도입키로

총량제 선택식은 점진적으로 도입

선택식 도입에 학생들은 일단 환영

학생생활관(관장 김봉애)이 오는 2학기부터 생활관 식당에 주말선택식을 도입한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의무식을 개선해 '평일 식사'와 '주말포함 식사'로 구분해 시행한다. 평일 식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식씩 제공된다. 주말포함 식사는 평일 식사에 토요일, 일요일 각 3식을 포함해 제공한다. 생활관 입주 학생들은 두 방안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학기 생활관 입주학생은 평일식

사와 주말포함 식사 중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식사 변경과 환불은 변경만료일인 8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주말선택식이 도입돼 몇몇 입주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다. 생활관 입주 학생 강용완(회계학과 2)씨는 "주말에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아 돈을 내고도 식사를 못한 적이 많다"며 "주말 선택식으로 바뀌어 많은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생활관 관계자는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45.3%가 제

도 개선을, 37.9%는 유지를 원했다"며 "또한 55.2%의 학생들이 총량제 선택식을 원했지만 직영 식당의 경우 바로 전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량제 선택식은 학생 수요 예측이 불가능해 식사 단가 책정이 불가능하다"면서 "전국 국·공립대학과 함께 식사 단가 인화와 다양한 선택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생활관 의무식 논란은 지난해 성균관대 통통학사의 '식권 구입 의무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으며 시작됐다. 그동안 성균관대는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입사 시 식당 이용 식권을 매달 60장씩 의무 구입을 강제했다.

현재 성균관대는 의무식을 폐지하고 다섯 가지 선택식을 도입했다.

현재 전국 10개 국·공립 대학교들은 의무식을 개선해 주말선택식과 이를 혼용하여 도입한 상태다. 강원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 5곳은 주말선택식을 도입했다.

경상대는 의무식에서 15식 결식인정하는 방안, 경북대는 학기별 총 식수를 다섯 가지 중 선택하는 방안도 입했다.

전남대와 서울과기대는 하루 식사를 2식과 3식으로 나눠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교토대는 전연식권제를 도입하고 주5일 3식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다.

강경태 기자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에 명예경영학박사 수여

“지역과 제주대 발전에 공헌”

발전기금·장학금 지속적 쾌척

제주대는 지난 3일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출신 강태선(㈜블랙야크 회장)에게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제주대 관계자는 “각종 활동을 통해 제주 지역과 제주대의 발전에 공헌하는 등 존경과 신망 받는 전문경영 기업인임을 인정해 명예박사학위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허항진 총장은 학위 수여식에서 “강 회장은 성실성을 바탕으로 시장



개척과 상품을 개발하는 탐험가 정신으로 ‘블랙야크 성장 신화’를 써온 자랑스러운 제주출신 오너 경영인이다”며 “강 회장이 지역에 남긴 가장 값진 선물은 제주가 더 이상 변방에 우뚝 선 새가 아니라 제주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신화를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저보다 열심히 뛰시는 선후배들도 많이 계시다. 제주대에서

주신 명예박사 학위를 감사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답하며 “젊은 친구들이 제2, 제3의 블랙야크를 창업해서 사회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서귀포시 예래동 출신으로 오현고와 탐라대를 졸업, 동국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3년 24살의 나이에 등산용품 산업에 뛰어 들어 국내 순수 토종브랜드 ‘블랙야크’를 한국 대표 브랜드로 키워냈다.

한편, 제주대에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블랙야크 장학금으로 1억원을 쾌척한 바 있다.

제2운동장, 풋살구장으로 조성된다

허정무-히딩크 재단과 협약

조성 후 시설물 대학에 기부

제주대는 지난 6월 12일 제주대에서 허정무-거스 히딩크(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재단과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구장’ 조성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항진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와 박도마트상진 이사 등 재단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대는 풋살구장 조성에 따른 부지 제공과 인·허가 지원 등을 하고 거스 히딩크 재단은



지난 6월 12일 제주대는 허정무-거스 히딩크(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재단과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구장’ 조성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풋살구장 조성과 조성 후 시설물 대학기부 등을 하기로 약속했다.

허정무-거스 히딩크 재단의 풋살구장 조성은 제주지역 사회체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풋살구장’은 대학 본관 남동쪽에 위치한 제2운동장에 조성될 계획이

다.

한편, 허정무-거스히딩크 축구재단은 지난해 3월 20일 한국 축구가 세계 강국이 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시스템을 갖춰 축구 꿈나무를 지도하겠다는 대의 아래 출범했다.

철학과, 철학독후감대회 개최

중·고교생 대상

9월 6일까지 접수

철학과(학과장 김치완)는 도내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제15회 철학독후감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참가 희망자는 제시된 선정 도서를 선택해 읽고 3000자 내외로 독후감을 작성해 오는 9월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철학과 전자우편(platon@jejunu.ac.kr)이나 우편(제주시 제주대학교 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우편접수시 '철학독후감대회 응모작'이라 명기)을 이용하면 된다.

우수상 2명(총장상)에는 상장과 도서상품권(10만원), 장려상 7명(총장상)에는 상장·도서상품권(5만원), 지도교사상 2명(총장상)에는

상장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0월 25일 오후 3시 진행 된다.

선정도서는 다음과 같다.

△지상에 순가락 하나(현기영) △난장이가 소아울린 작은 공(조세희) △ 1984(조지 오웰) △사랑의 기술(에리히 프롬) △소피의 세계(요슈타인 가아더) △장미의 이름(움베르토 에코) △느림의 발견 1, 2(스텐 나폴니) △철학을 담은 잔소리 통조림(마크 켈런) △애니메이션으로 떠나는 철학여행(김치완) △녹색의 상상력(박병상) △청소년, 코끼리에 맞서다(나탈리 르비살) △철학카페에서 문학 읽기(김용규) △철학, 역사를 만나다(안광복) △열하일기(박지완) △오래된 미래(헬렌 나노브레라-호지).

문의는 철학과 사무실(전화 754-2750)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항진 편집인·주간 김동윤 편집국장 김영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nu.ac.kr

‘오자룡...’ 작가 김사경

발전기금 2000만원 기탁

김사경(방송 작가)씨가 7월 15일 대학발전기금으로 2000만원을 출연했다.



제주대 영어영문학과 출신인 김사경씨는 출연금 중 1000만원은 영어영문학과 후배 장학기금으로, 나머지 1000만원은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으로 지정 기탁했다.

MBC 드라마 ‘오자룡이 간다’ 작가였던 김씨는 지난 2011년에도 인제양성관 건립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김씨는 KBS 드라마 ‘미우나 고우나’ ‘걱정하지마’, SBS ‘내사랑 내곁에’ 등 프로그램에서 작가로 활동했다.

과학영재교육원 원생모집

중등부 120명 초등부 80명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오홍식)이 ‘2014학년도 융합창의 인재 양성 과정’에 참여한 중등부 120명, 초등부 80명 등 총 200명을 모집한다.

영재교육이수자 전형은 7월 22일부터 8월간, 일반전형은 8월 12일부터 5일간 접수한다. 접수는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과학영재교육원 홈페이지(http://gifted.jejunu.ac.kr)를 참조하면 된다.

수출전문인력 양성 워크숍

지난달 25~26일 개최

제주대학교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GTEP·사업단장 이용완)은 지난달 25~26일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FTA시대의 제주형 수출전문인력 양성’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는 변영실 리더십&코칭센터 대표와 이근복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의 특강, 사업단 요원들의 토의 및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은 지금까지 무역이론 교육과 작업체들 간의 협약을 통해 아이템분석 및 시장조사 등의 성과를 냈다.

알립니다

다음호 신문(897호)은 2학기 개강호인 8월 28일자(수)로 발행됩니다. 또한 894호 제주어 낱말맞추기는 정답자가 없습니다. 정답은 제주대신문 홈페이지(news.jejunu.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어 낱말맞추기는 연재를 마칩니다.

제3도서관 오는 10월 착공... 중앙도서관 있는 방식으로 신축

140억 들어 2016년까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000㎡
장서 보관 문제·바닥 균열 등 문제 해소 기대

‘제3도서관’ 신설이 기존 중앙도서관을 연결하는 증축사업 형식으로 진행된다.
제주대는 산림조합과의 토지 교환을 통해 기존 중앙도서관 남쪽에 ‘제3도서관’을 짓는다.
‘제3도서관’ 신축은 지난해 1월 교육과학기술부 신규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부지 확보와 장소 마련 등을 진행했고 ‘제3도서관’ 신축 공사를 오는 10월에 착공한다. ‘제3도서관’은 오는 2016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기존 중앙도서관과 연결해 새로 증축되는 ‘제3도서관’은 140억원의 사

업비가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000㎡ 규모로 지어진다. 도서관 내부에는 열람실·멀티미디어자료실·정보검색실·세미나실·간행물실 등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중앙도서관은 해마다 4만~5만 여권 정도장서량이 증가하면서 수장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함께 여태껏 특별한 대비책 없이 장서수를 늘려만 왔기 때문에 도서관이 수용할 수 있는 장서수가 한계에 다다랐고, 건물이 과도한 하중을 받고 있어 조속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



멀티미디어자료실 등을 갖춘 제3도서관이 201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는 중앙도서관이 최대 적정소장 책 수의 66

%를 초과해 바닥에 균열이 있고 증축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등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을 받았다.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중앙도서관 신축 사업을 허가 받았을 때에는 제2도서관 옆에다 짓기로 계획했으나 일조권 확보 등 도시계획상 문제점과 도서관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으로 인해 적정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고민을 통해 현재 중앙도서관을 있는 방식으로 제3도서관을 신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3도서관이 완공되면 장서보관 등의 문제가 해소되고 구성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상훈(경영정보학과 2)씨는 ““현재 중앙도서관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춰 학생들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와라와라”

‘와랑와랑’은 ‘소리가 크게 울리는 모양’이란 뜻의 제주어입니다. 글·그림 / 김초영

우리나라 역대 학생운동

1919년 도쿄
조선은 자주국가다! 민족의 독립을 선언한다!

2·8독립선언

1929년 광주
검거된 학생들 신민교육 철폐하고 일본 물러가라!

광주학생항일운동

1960년 서울
부정부패 타도! 민주주의 회복하자!

4·19혁명

그리고 지금

30대 정에서 40대 사국선언문

세상을 바꾸는 힘, 그 주역은 언제나 학생입니다

이종우 교수, ‘다이하드4’ 발견

초파리의 시신경 활용
퇴행성 신경질환에 도움

아열대원에산업연구소 이종우 교수가 초파리의 시신경에서 로돕신(시신경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G-단백질 결합수용체) 리싸이클링이 원활히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다이하드4’ 유전자를 발견했다.
이번 연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일반연구지원사업으로 수행됐으며 분자유전학 및 유전체학 분야 학술지인 플로스 제네틱스 6월 6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이 연구는 로돕신이 빛에 의한 활성화 이후 진행되는 비정상적인 비



활성과 및 재생 과정이 퇴행성 시신경 질환을 야기하는 문제에 실마리를 풀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팀은 유전자들을 발견하고 ‘다이하드4’라고 명명했다.
‘다이하드4’는 로돕신이 엔도솜에서 리소솜으로의 이동에 관여함으로써 리소솜에 의한 과도한 로돕신 분해를 억제할 수 있다. 이 유전자를 통해 G-단백질 결합 수용체의 비정상적인 활성억제과정으로 야기되는 퇴행성 신경질환과 관련한 신약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우 교수는 “이번 연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일반연구지원사업으로 수행됐으며 분자유전학 및 유전체학 분야 학술지인 플로스 제네틱스 6월 6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수의과학연구소 ‘실험동물캠프’ 개최

수의과학연구소(소장 이영재 교수), 실험동물센터(센터장 손원근 교수), WISET 제주지역사업단(사업단장 도양희 교수)은 최근 수의과학과 교양동 일원에서 BT(바이오 기술)분야 대학원 진학 및 취업을 준비하는 이공계 학과 16명을 대상으로 ‘실험동물캠프-학점보다 알찬 동물실험 도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제주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기본 동물실험기법에 대한 이론 강의 및 실험실습으로 진행됐다.
캠프 수료자들에게는 학생 경력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의과학연구소장 명의의 교육 인증서가 발급됐다.

여름방학 맞아 봉사활동 나섰다

수의대 봉사단 등...지역사회 봉사활동 전개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서귀포시와 우도에서 수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동물진료 봉사활동을 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주대학교 봉사단(단장 김석중 학생처장)은 지난 5일부터 4일간 전남 고흥군 국립 소록도병원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 봉사단에는 교직원 3명, 학생 17명 등 총 20명이 참가했다. 봉사단은 국립 소록도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과 같이 생활하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앞서 생활환경복지학부 내 분과동아리인 ‘아리따운’ (회장 조수행) 동아리는 지난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봉사활동은 ‘우리는 윤리적 소비자-녹색소비편’을 주제로도 남초, 신제주초, 서귀포초의 26개 학급과 홍익보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웨이나 화장품과 업무협약 체결

기술사업화 공동추진 등
“1호 외국 가족회사 기대”

제주대는 지난 4일 중국 웨이나 화장품(회장 이선용)과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제주대가 보유한 특허 정보 공유 및 기술사업화 공동 추진 △교수진들과 공동연구 및 신소재·콘텐츠 개발 공유 △웨이나 회사 사원을 대상으로 한 기업 위탁교육 연수과정 운영 △중국 유학생 유치·제주대 학생들의 중국 진출 △대학 홍보 협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제주대의 국제화 전략에 주는 의미

가 크다”며 “기술사업화와 화장품 인종교육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상호 실질적 산학협력에 대한 합의가 된 만큼, 앞으로 제주대의 외국 소재 제1호 가족회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하이에 위치한 웨이나화장품은 2003년 설립됐으며 중국 전국 판매망을 갖춘 화장품 제조 및 방문 판매 전문 회사이다. 100% 한국 자본으로 진출해 기술과 원료는 모두 한국에서 가져가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제주도의 천연자원과 콘텐츠를 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을 위해 제주대가 보유한 특허기술도 공유하고 있다.

현수미씨 백록문학상 소설 부문 당선

시부문 박승진·백희진 가작
공모에 17명 58개 작품

현수미(국어국문학과 4)씨가 제33회 백록문학상 소설 부문에 당선됐다. 관련기사 4·5·6면
지난 1일 마감된 백록문학상 소설 부문에서 현수미씨는 ‘경마장 밑바닥’을 응모해 당선됐다. 당선작이 없었던 시 부문에서는 백희진(국어국문학과 3)씨의 ‘발톱을 깎으며’와 박승진(국어교육과 3)씨

의 ‘모람모람’이 가작에 뽑혔다.
소설 부문 당선자에게는 17일 시상식에서 총장상과 상금 70만원이 수여된다. 시 부문 가작 수상자 두 명에게는 시 당선작 상금의 절반인 25만원씩이 지급된다.
이번 백록문학상에 시 부문에서 8명의 49편 작품이, 소설 부문에서 9명의 9편 작품이 접수됐다.
이번 백록문학상 수상자는 시인 나기철씨와 문학평론가 홍기돈(가톨릭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씨가 맡았다.

충북대 교류연수단, 제주대 방문



지난 9일 충북대 교류연수단이 제주대를 방문했다.

충북대(총장 김승택) 교류 연수단(단장 조성구 학생처장)이 9일 제주대를 방문했다.
양 대학은 지난 1990년 2월 교류 협약을 맺어 매년 상호방문 행사를 갖고 있다.
교직원 10명, 학생 30명 등 40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이날 허창진

총장과 양 대학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대학시설 견학과 함께 제주대 교류단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이들은 11일까지 제주에 머무르며 문화 탐방 및 올레길 탐방 등 일정을 보냈다.
한편 제주대 교류 연수단은 16일부터 3일간 충북대를 방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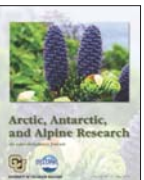
사람들

고석찬(생물학과) 교수 논문
극지고산학회지 표지에 게재

고석찬(생물학과) 교수의 ‘한라산 구상나무 침엽의 해발고도별 광보호 반응의 계절적 변화’ 논문이 미국 극지고산학회지(Arctic, Antarctic, and Alpine Research) 표지에 게재됐다.
이 논문은 한라산 계절 및 고도별로 구상나무 침엽의 광보호 반응을 비교 분석해 여름철 고온이 고산 식물에 극지고산학회지(Arctic, Antarctic, and Alpine Research) 표지에 게재됐다.

감상규(환경공학과) 교수
환경의 날 기념 국무총리 표창 수상

감상규(환경공학과 교수)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장이 지난 5일 대구 수목원에서 열린 ‘제18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감 센터장은 지난 1990년 3월 교수로 부임해 환경기술인 양성, 296편 논문의 국내외 저명학술지 게재 및 학회발표, 7편의 저서 및 역서, 1건의 특허등록을 했다. 또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장,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전문위원 및 지하수관리전문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제주지역 환경보전과 발전, 환경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영상(의학과) 교수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고영상(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주최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들 심사기관은 2012년도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소속 학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추천한 우수논문을 과총에서 분야별 심사 및 종합 심사해 과학기술우수논문으로 최종 선정했다.

배종면(의학과) 교수
대한암학회서 GSK 학술상 수상

배종면(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9차 대한암학회 학술대회에서 ‘한국 남성에서의 흡연이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16년 관찰 연구’ 논문으로 GSK 학술상을 수상했다.
배 교수는 이 논문에서 ‘흡연자의 폐암 발생률이 비흡연자의 4배에 달하며 2009년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 41%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성인 남성 폐암 발생의 55.6%가 흡연이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조성운(사회학과) 교수 저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조성운(사회학과) 교수가 펴낸 ‘창기학과와 재일



한국인’ (도서출판 한울)이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수학술도서 800만원을 지원, 도서를 구입해 공공도서관·병영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교정시설 등 1000여 곳에 배포한다.

허종철(풍력특성화협동과정) 주임교수
호민 기우봉 풍력상 수상

허종철(풍력특성화협동과정) 주임교수가 지난달 20일 서울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제3회 세계 풍력의 날 행사에서 한국풍력산업협회에서 시상하는 ‘제1회 호민(好民) 기우봉 풍력상’을 수상해 상패와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 상은 고 기우봉 박사가 임종 직전 아름다운재단에 유산을 기부하면서 조성된 호민기금으로 만들어졌다. 호민기금의 절반을 우리나라 풍력 발전 확산에 업적과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도록 당부한 고인의 유지에 따른 것이다.
허 교수는 풍력특성화대학원 교수로 재임하며 국내 풍력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허종철 주임교수는 이번에 받은 상금 전액을 제주대 풍력인력양성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양영오(수학과) 교수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임명

양영오(수학과 교수) 제주발전연구위원이 지난달 19일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에 임명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이원종 전 충북지사를 임명하고 민간 위원 18명을 선임했다.
지역발전위는 18명의 민간 위원과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 장관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강민수(동물생명공학전공) 교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신규과제 선정

강민수(동물생명공학전공) 교수의 ‘말산업을 기반으로 한 제주형 LOHAS MICE 상품 육성사업’이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2차년도 신규과제로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제주관광공사(사장 양영근)를 참여기관으로 해 말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제주형 LOHAS MICE 재할·힐링승마관광프로그램 개발, 제주 MICE 특화 LOHAS 상품 발굴 판매 등 글로벌 LOHAS MICE 상품을 육성하는 것이다.
강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년간에 걸쳐 연간 2억500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고미정·니레시 샤르마 원생
동물자원과학회서 각각 우수논문상 수상

고미정(동물생명공학전공 대학원과정)씨와 니레시 샤르마(인도)씨가 지난 2월 2013 한국동물자원과



학회 종합심포지엄과 학술발표회에서 각각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고씨의 논문 제목은 ‘만추위 pH 조정제 급여가 젖소의 생산성 및 혈액액상성에 미치는 영향’이다. 능력이 높은 젖소나 한우 비육우에서 위내 산성도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액상형 완충제의 이용에 대한 연구결과다.
샤르마씨는 ‘생명공학과 줄기세포 기술이 접목된 소 유선줄기세포 확립 및 특성규명’에 대해 발표했다.
향후 유전자 조작 동물(LMO)이 아닌 유선에 이식한 유선줄기세포만으로도 고가의 생리활성물질들을 우유내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유전적으로 매우 안전

김보련(재활의학과) 교수팀
심장호흡재활의학회서 우수연구상 수상

한 기술을 소개했다.
김보련(제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팀(한은영·주승재·김송이 교수, 최준환·이소영 전공의, 윤호민 물리치료사)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된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 2013년 제3회 학술대회’에서 우수연구상을 수상했다.

김보련 교수팀이 이번에 수상한 논문의 제목은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에서 지상 및 수중 트레드밀 운동에 따른 심폐 반응(Cardiorespiratory responses during aquatic & land treadmill exercise in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이다.



제33회 백록문학상 당선작 발표

» 소설 당선작

경마장 밑바닥

현 수 미 (국어국문학과 4)

경마장에 갔던 기억이 하나 있다. 어쩌며 내 첫 기억일지도 모를 아주 어릴 때의 기억이다. 지금은 뽕뽕이 흩어져 있는 친척들과 경마장으로 나들이를 온 적이 있었다. 국도를 지날 때면 말들이 풀 뜯어먹는 모습을 자주 구경할 수 있을 정도로 P는 말이 유명한 곳이다. 유치원에서 소풍을 갔던 곳도 경마장이고, 초등학교 때 현장학습을 간 곳도 경마장이었다. 그러나 친척들과 갔던 경마장보다 더 뚜렷하게 기억되는 경마장은 없다. 그 날, 우승마에게 돈을 걸었던 사람은 고모뽕이라고 한다. 번 돈으로 영영 우는 내게 바닐라 콘 아이스크림도 사줬다고 한다. 부드럽고 많이 달지 않으면서도 혀에 사르르 스며드는, 아직까지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바닐라 콘 아이스크림이 처음 경험한 경마장의 느낌이었다.

소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미리 준비해 온 대사를 곱씹었다.

‘공자는 자신의 길은 학문에 있다고 하시며 말의 배설물을 치우고 가축을 관리했습니다. 제가 공자만큼 뛰어난 학문을 할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알게 뭐야. 웬서핑을 통해 말과 관련된 일을 한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그럴싸한 위인으로 공자를 겨우 찾았다. 가뜰이나 일자리 부족한 P에서 학기가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호모 발효되듯 증가했다. ‘딱 이때쯤이면 너 만만 아이들아! 경마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우르르 여기로 몰려와.’ 라는 외삼촌 말에 면접 하루 전 부랴부랴 자기 소개를 준비하고 왔다.

소장실은 강의실보다 넓었고 고등학교 교장실보다 더 과시적이었다. 허허벌판과 이차선 국도만 보이는 소박한 창밖 풍경이 사진을 벽에 붙인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소장님은 비행기에서 방금 뜯어왔을 것 같은 의자에 앉아 열심히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너무 진지해 보여서 외삼촌과 나 둘 다 말도 못 불렀다. 외삼촌의 표정을 보아 평정히 심각한 일인 것 같았지만 난 그냥 국도로 지나가는 차가 경차가 많은지 사륜구동이 많은지만 세고 있었다.

“전과장 조카라고?”

실장이 전화를 끊고 대뜸 물어봤다.

“네.”

“내일 아침 10시까지 와.”

그리고는 다른 곳에 전화를 걸었다. 소장님은 머리가 4B연필로 대충 그리다 만 것처럼 보일 정도로 흰머리가 무성해 아버지보다는 나이가 많아 보였다. 소장님이 40대 후반이라는 사실이 ‘P지역 경마장 3대 미스터라’라 들은 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딱 15일 후였다.

난 경마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말들이 아침운동이 끝날 시간 쯤 직원버스가 경마장에 도착하고, 경주마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삼으로 말똥을 치운다. 장화와 목장갑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짐승의 배설물에 대한 혐오감을 일을 하다 보니 저절로 무뎠졌다.

“회도도 익숙해진 거야.”

이장 아들 선배가 강낭콩밥을 배추된장국에 말면 서 싱긋 웃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6개월 전부터 일하고 있는 선배였다. 우락부락한 덩치에 상관없이 얼굴은 순박하고 동글동글 아기 같은 선배는, 딱 보기에라도 성실하게 일 할랄 것 같아 생겼다.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어도 혼자만 조선시대 주막에 온 것처럼 국에 밥을 말아 퍼먹고 있다. 국에 밥 말아먹는다고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아니었다. 선배 옆에만 가면 할아버지 맥에 가서나 말할 수 있는 흙냄새와 살짝 녹이 든 삼과 호미의 비릿한 냄새가 느껴졌다. 그래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은 마을에 일이 생기면 삼을 들고 주민들에게 찾아갈 것만 같다고 하여 선배를 이장 아들이라고 불렀다. 진짜 선배 아버지께서 이장인지 썩장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선배는 원래 똥 치우는 일 안 했잖ాయ오.”

“아이 참, 누가 밥상머리에서 똥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 앞에서 뽕치볶음을 먹고 있던 사포언니가 내 말을 짜증냈다. 아침 일찍 출근버스를 타고 경마장에 오는데도 화장은 시내에 놀러가는 것처럼 진하게 하는 사포언니다. 아침에 너무 부지런을 떨었는지 막상 경마장에 와서는 설렁설렁 일을 했다. 그러면서 까칠하기는 웬만한 경주마들보다 더해서 사포라 불린다. 물론 나만 그렇게 부르지 다른 사람들은 시원시원한 성격이라며 언니를 추켜세운다.

같은 시간대에 일하는 나와 이장 아들 선배, 사포 언니 중에서 내가 가장 늦게 들어왔기에 난 하루 종일 말들의 배설물들만 치워왔다. 치우는 것이 일의 다라면 다행이지, 기타 허드렛일은 내가 도맡아 하고 있었다. 사포언니와 선배는 말들에게 약을 주고 사료

를 주고 기본적인 관리를 했다. 사포언니는 오랫동안 경마장에서 일해 온 숙련된 노동자이기에 배설물을 안 치우는 것이고, 선배는 생명공학을 전공한 유능한 노동자이기에 이력서를 놓자마자 중요한 직책을 맡은 거였다. 경마장 직원인 외삼촌의 추천으로 경마장에 온 내가 단순하면서도 몸이 피곤한 일을 하는 건 당연했다.

우리 셋은 경마장에서 시간대가 같아 친하게 지내는 것이지, 선배와 언니는 성격을 포함하여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었다. 동갑인 이장아들 선배와 사포언니는 점심을 먹는 이 짧은 순간에도 서로 흠집을 내지 못해서 안달이었다. 사실 이 둘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싸우고 싶어 안달 난 것은 사포언니뿐이었다. 두 명의 말다툼은 사포언니가 내게 별 이상한 이유로 지적하면 이장아들 선배가 날 감싸주면서 시작된다.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내가 싸움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포언니는 선배를 자극할 무언가가 필요했고, 선배 역시 사포언니를 아끼게 보고 싶어 무조건 내 편만 들어주는 것이었다. 지금도 나는 없는 사람처럼 돌아서만 거칠게 말을 주고받으며 싸우고 있었다. 이 싸움은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다. 참 절름 놀고 있다.

평소대로라면 절대로 내가 치우고 있는 말똥을 자세히 보지 않았을 것이다. 땅에 배설물이 남았는지 확인만 하지, 경마장 지독한 냄새의 원인인 말 응가 속에 무엇이 있을지 확인할 리 없었다. 말똥을 한참 들여다보게 된 건 사포언니가 점심시간에 계속 ‘똥똥’ 거려서 였다. 지 똥은 향긋한 솜털인가. 사포언니에 관한 아니꼬운 생각이 억으로 말똥은 사실 혐오스러운 물체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발전해버렸었다. 확실히 말똥이 사포언니의 그것보다는 훨씬 유익했다. 반지를 품고 있었다.

누군가 반지를 이곳에 떨어트릴 확률과 말이 반지를 삼켜서 그대로 배설되었을 확률 둘 다 낮았다. 하지만 반지는 존득존득 파끈파끈한 말똥 속, 분명 그곳에 있었다. 한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식은 많을지언정 욕심은 없고 못된 형 하나 있는 흥부에게 제비가 박씨를 가져다 준 이야기. 아니면 아버지 눈을 뜨길 빌며 인당수에 다이빙한 후 왕비가 된 심청이. 금도끼, 은도끼 모두 거절하고 쇠도끼를 선택한 나무꾼에게 세 도끼 모두 준 산신령 이야기. 작하게 산 사람에게는 행운이 온다는 훈훈한 전래동화들이다. 그 순간만큼은, 말똥 속에 반지는 비위 상하는 미천한 일과 성질 나쁜 동료들이 있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음에 대한 산신령의 보상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었다.

시외버스를 타고 집으로 걸어와 방 안 침대에 누울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났다. 설사 소장님이 내일 2시간 일찍 나오라는 이야기를 했어도 상관없었다. 내겐 반지가 있다. 경마장 화장실에서 대충 노폐물들을 씻고 재빠르게 화장지에 말고 주머니에 넣었었다. 도덕시험을 보던 중 ‘공자가 서른 말을 나타내는 말은?’ 라는 주관식 문제에 컨닝하던 때와 베품가는 살 펴리던 순간이었다. 스탠드 아래에서 자세히 들여다 본 반지는, 그 알이 굵은 깊은 바다 빛 사모님용 반지였다. 20살 풋풋한 여대생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제야 내가 남의 반지를 자기 것 마냥 집으로 가져왔다는 게 느껴졌다.

죄책감과 고민은 ‘만약’에서 출발한다. ‘만약’ 주인공이 경마장에 찾아온다면? 돈을 걸 것도 아니면서 경마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관광객이다. 생전 말 한 번 타보지 못한 다른 지역, 큰 도시의 사람들. 이 반지 하나 찾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경마장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어쩌면’ 반지 주인은 이미 비행기를 타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날아갔을 수도 있다. 허허벌판에 딱히 있는 경마장에 이만한 반지를 끼고 열 정도면 꽤 부유한 사모님 일 테니 반지 하나쯤 잃어버려도 괜찮겠지 하며 안도하다가도, 열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는 사모님 앞에서 절도죄로 경찰차로 끌려가는 내 모습이 상상되기도 했다. 심란하다.

사포언니가 집에 돌아왔다. 경마장 사람들은 사포 언니와 내가 묘하게 닮았다고 했지만, 우리 둘 다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사포언니와 난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항상 들었다. 자 때가 어쩔 이리 쌍둥이처럼 닮았냐고, 어렸을 때는 똑같이 생겼었지만 지금은 약간 닮았다는 느낌만 있을 뿐, 쌍둥이 같다는 말은 듣지 않았다. 언니는 자신의 외모콤플렉스를 진한 화장과 화려한 장신구들로 가렸다. 내 얼굴이 전형적인 몽골리안의 얼굴이라면, 언니는 오리엔탈리즘을 자극하는 얼굴이었다.

2년째 대학에서 카지노경영학을 졸업한 언니는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중국어 학원에 갔다. 집에서 카드를 가지고 이리 펼치고 저리 펼치던 언니는 졸업하면 카지노에 바로 취직 할 것만 같았지만,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열심히 공부했던 영어가 아닌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도 선택을 안 했던 중국어 때문에 카지노에 취직하지 못했다.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는 P 지역 사람들이 카지노에 갈 일은 극히 드물었다. 대부분 카지노의 알짜배기 손님은 중국인 관광객이었다. 중국어 못 해도 덜러하는 사람들 많았던데, ‘내가 한 말에 언니는 가볍게 비웃었다. ‘그 사람들은 여기 있는 카지노에서 평생 일할 사람들이야. 난 여기서 조금 일하다가 곧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카지노로 갈 사람이고.’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카지노는 월급을 짜게 줘서 그러는거보다 하고 대충 넘겼었었다.

경마장 안에서는 날 죽일 듯이 괴롭혔지만, 집 안에서는 나를 다정한 언니였다.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쪼르르 언니 방으로 갔다. 목적이 분명한 발걸음이었다.

“동생아, 네가 여기 웬일인 거야?”

언니는 스타킹을 벗다 말고 날 다정하게 반기는 척 했다. 범인들은 모르겠지만 수십 년 동안 언니 밑에서 수련하던 난, 언니 기분이 몹시 안 좋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망했다. 언니 방에 온 건 반지에 대한 부담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였다. 사귀었던 남자들과 헤어진 후 커플링을 알뜰하게 되팔던 언니는,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인물이었다.

언니 손에 바다색 알이 빛나는 반지가 대굴대굴 구르고 있다. 워낙 깔끔한 언니라 말똥 속에 있던 반지를 주어진 것이라 말하지는 못했다. 언니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마장에 고스란히 가져갈지, 팔아서 용돈으로 사용하지 결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언니는 돌보기로 반지를 들여다봤다가, 스탠드 불빛에 비쳤다가, 손가락에 끼워보고, 톡톡 두드리기까지 했다. 감정이 끝나자 언니는 다시 반지를 내게 돌려줬다. 별로 값어치가 있는 반지는 아니라 확신하고 실망하던 순간, 언니가 뜬금없이 질문을 했다.

“너는 왜 경마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지?”

아까부터 심기 불편한 언니였기에 이상한 질문이라 생각 들어도 꼬박꼬박 대답해야 했다.

‘이번 토익 학원에 등록할 돈이랑 내 생활비.’

사실 뻥이었다. 경마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건 외삼촌의 권유 때문이었다. 가뜰이나 명문대라 칭하는 대학에 다니는 사촌동생이 와 있어서 밥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이던 외할아버지 제삿날이었다. 사촌동생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고 영재였는지 친척들이 칭찬하고 있는 밥상머리에서, 나는 잡채에 코를 박고 열심히 먹고 있었다. 등록금에 매달 용돈까지 꼬박꼬박 타가는 나와 장학금 받으며 학교 다니는 사촌동생을 비교하는 엄마의 호탕한 웃음 사이로 외삼촌의 목소리가 슬그머니 들려왔다. ‘용돈 부족하니? 경마장에서 일 안 해볼래?’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 내가 경마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원인은 학과 친구 때문이었다. 아수타이도로 시험 족보가 없어 고생하던 내게 한줄기 빛 같았던 친구였다. 1학기 기말시험이 모두 끝난 날 그 친구 집에 놀러갔었다. 방안에 들어가니 친구의 옷이 의자를 시작으로 침대 밑에까지 천장을 제외하고는 온갖 곳에 걸려 있었다. ‘어디 이민 가?’ ‘여행 가.’ 절대 여행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내가 들어갈 수 있을만한 가방이 방 한 가운데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오래 가?’ ‘동남아시아 가거든.’ 친구는 여행사에서나 있을 팸플릿을 보여줬다. 머리카락이 채찍처럼 후려치는 바람이 선풍기에서 매섭게 날아왔다. 팸플릿 사진에서는 후덥지근한 공기가 울라오고 있었다. ‘가족여행이야?’ ‘애들끼리 용돈 모아서 가는 거야. 한 명 정도는 더 갈 수 있는데.’ 친구는 엉덩이를 좌로 쉴룩 우로 쉴룩쉴룩거리며 흘러줄을 쳤다. 인도네시아에서 하와이 전통춤을 출 정도로 정신없이 기쁜 모양이었다. 팸플릿에 써진 가격에는 7자리 숫자가 써져 있었다. 내게 걸려있는 보형 하나를 꺼야 얻을 수 있는 돈이었다. 여행과 미래를 맛보기에는 내겐 암 가족력이 있다는 건 구차한 핑계고, 그 짧은 여행에 이런 무지막지한 돈을 쏟아 붓는다는 게 이해가지 않았다. ‘동남아시아 가서 뭐 보고 싶어?’ ‘그냥 해와 나가니까 좋은 거지. 젊을 때 밖에 나가는 거야.’ 누가 우리 잡아두기라도 할 것처럼 친구는 그냥 밖에 나간다는 것에 신나있었다. 편안하고 안락한 이곳을 놔두고 가서 고생하려는 그 의지를 이해하기는 난해했다. 밖으로 나가면 뭔가 더 좋은 세상이 있을까? 경마장 아르바이트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었다. 동남아시아는 아니더라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P가 아닌 다른 곳에서 놀고 싶었다.

언니에게 놀고먹고 하려고 일 한다 솔직하게 말할 필요는 없다. 유혹비로 반지나 주워온 동생은, 내가 생각해도 한심한 년이었다.

‘그래그래, 대학 다니고 스펙 쌓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언니는 이제까지 동생이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일러스트=김소영 기자

사람이라는 걸 몰랐잖아 보다. 세지 허로 내똥린 거 것말에 꽤나 흡족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토익을 배우기 위해서라면 동생이 도둑이 돼도 상관없다는 반응이었다. 언니는 내 손에 있던 반지를 다시 집었다.

“내가 팔아줄게. 많이는 못 받으니까 참고하고.”

카푸치노 색 알박스타킹을 벗으며 언니는 웃는다. 지방보다 근육이 더 많은 날씬한 다리에서 흐물흐물 벗겨진 스타킹이 침대에 던져진다.

“참, 동생아. 이장아들 선배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언니는 뜬금없이 말했다. 나는 알았다 대답하고 슬그머니 침대 위에 흐물거리고 있는 스타킹을 집고 언니 방에서 나왔다.

경마장 한쪽에는 승마를 할 수 있는 체협관이 있다. 조금 넓다 할 수 있는 공간에 말 몇 마리 집어넣어져 있다. 그 말들은 절대 달려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 승마 체협장에 가족 무리로 추정되는 관광객들이 승마체험을 하려고 모여 있었다. 선배가 아이를 말 등에 탈 수 있도록 안고 있다. 아이는 신나서 까르르 웃고 있지만, 선배는 아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 말은 순하지만 겁이 많고 예민한 동물이다. 선배는 혹시 관광객들이 다칠까 봐 조마조마해하고 있건만, 관광객들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뒤이어 엄마로 추정되는 여자가 말을 타려고 한다. 이번에는 남편이 도와주고 있다.

관광객을 모두 태운 말들은 줄을 지어 울타리를 빙빙 돈다. 말이 조금이라도 빨리 달린다면 관광객들은 깜짝 놀라 몸이 경직된다. 아니면 일부러 소리를 내거나 몸을 크게 움직인다. 특히 아이의 이모로 추정되는 진분홍 옷의 아가씨는 과장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선배가 아이를 안고 안장에 앉도록 도와줄 때, 선배를 힐끔 쳐다보면서 빙글 웃고 있던 중국여자였다. 진분홍색 중국여자는 선배에게 뭐라 말하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선배는 중국말을 전혀 할 줄 몰랐다. 중국여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마도 이런 내용일거라 한뼉 상상해봤다.

- 나는 중국 귀족, 너는 여기 젊은이. 천생연분 결혼합시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예식장은 호텔 예

식장, 주례는 공산당원, P지역 땅 반 사다 너한테 선물로 줄게.

내가 생각해도 너무 기발한 해석이기에 혼자 웃다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언니에게 뒤통수를 한 대 맞았다.

“오를 학원 끝나고 반지 팔 거란다. 집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야 해.”

“비싼 값에 팔아.”

“신경 쓰지 말고, 저기 가서 일이나 하려무나.”

언니는 살짝 윈크를 하고 말똥이 있는 곳을 가리켰다. 그때 저 멀리서 중국인 관광객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이를 태우고 있던 말이 걸으면서 묶은 몸을 싸고 있다. 뒤 따라가던 말이 몸을 흔들며 멈추자, 뒤에 타고 있던 아이 엄마는 비명을 지른다. ‘똥 튀어, 똥 튀어 튀어.’ 이런 말을 하는 듯 보였다. 핑크색 옷을 입고 있던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선배에게 내려달라고 손짓한다. 아이는 뒤에서 들려오는 두 여자의 비명 소리에 놀라 영영 울고, 기다리고 있던 다른 중국인 관광객들은 손뼉을 치며 웃다가 사진을 찍어대고, 선배를 포함한 사람들이 우르르 승마 체험장으로 달려가 말과 사람들을 진정시킨다. 언니와 나는 처음 본 광경에 멍하니 제자리에 서 있었다.

소장실에서 나오면서 붉고 축축해진 눈을 손으로 닦았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소장실로 불려 들어가 점심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 한소리를 들었다. 말이 아파서 벌어진 일 가지고 똥이나 치우는 내가 욕을 들어야 하나 화도 났고, 다른 사람들이 소장님 발소리만 들려도 몸을 숨기고 있을 때 나는 왜 소장님 시야에 잡혔는가 후회도 들었다. 무엇보다 배고플 때 듣는 잔소리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형벌이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선배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서 있었다. 바닐라향 콘 아이스크림이었다.

“내개 말들 상태를 일일이 다 확인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말 건강을 관리하는 건 선배의 일이라 선배에게 책임이 있는 게 맞았지만, 하급지갑 아이스크림 겁질을 까느라 누구의 잘못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내게 지금 중요한 건 똥안 속살을 가진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녹느냐 안 녹느냐 뿐이었다.

<5면에 계속>

» 시 가작

발톱을 깎으며

백 희 진 (국어국문학과 3)

전기뱀장이 한 마리가 사나
발톱이 찢릿찌릿
등을 말고 눈알이 빠지게
손톱깍이를 들고 전쟁을 치르는데
지 애비 닳아 발톱도 저 모양이지
어느새 어머니가 내 앞에 자리를 잡으셨다


톡
톡
톡

30년 가까이 숙련된 장인의 손놀림
발톱이 가지런히 떨어져 나가고
전기뱀장어도 제 집을 찾아 나갔다
어머니 손에 뿔힌 두루마리 휴지 한 장
어느새 걸레가 되어 방바닥에 떨어진 발톱을 흡친다

피터팬인 아버지
욕심 많은 딸자식
얼마나 미웠을꼬
도려내지도 못하고
걸레로 훔치지도 못하고

톡
톡
톡

어머니의 청춘이 떨어져 나갔다



수상소감

작가 꿈꾸는데 이번 수상이 큰 힘 돼

부족한 나에게 주어진 상이라 수상소감을 쓴다는 게 부끄럽다. 실패작과 성공작을 떠나 내 스스로 내 시를 가치있게 바라보고 싶었을 뿐인데, 타인 또한 내 시를 예쁘게 보겠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이와 함께 앞으로 더 잘하라고 주는 상이라 생각하며 글을 쓰는 데 있어 온 힘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내가 시를 읽고 쓰는 건 대부분의 사람이 산이나 바다를 통해 일상의 찌든 때를 벗겨내는 것과 같은 마음이다.

무미건조한 삶에 열정의 불을 지펴주고 나를 찾는 지름길을 알려주었기에 많은 이들에게 글쓰기와 읽기를 권장하고 있다. 나는 글을 쓰는 일을 업으로 삼고 싶다. 장점을 휘두르는 무사가 아니라 단검으로 틈새를 파고들어 찌르는 것이다.

그래서 글 쓰는 시간보다 많은 경험에 공을 들이는 준비된 작가가 되고 싶다. 퇴고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나는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다.

내가 과연 재능이 있는 걸까? 정말 노력하면 되는 걸까? 공모전에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내 꿈이 흔들릴 때 나는 백록문학상을 받게 된 것이다. 내 꿈에 초석을 다져준 백록문학상이 더욱 뜻깊은 이유이다.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나승연 대표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성공하고 입국하는 날 프레젠테이션의 노하우는 무엇입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가 연수만이 살길이라고 말한 인터뷰 내용을 잊을 수가 없다.

앞으로도 나는 작가로서의 성공의 꿈꾸며 노력할 것이다 그럼 언젠가, 뱃바리에 서서 불매를 읽어내는 노련한 어부가 되지 않을까?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사랑할 수 있는 나이인 것이 청춘이라고 생각한다. 흔들리는 청춘이며, 모두들 힘내시길, 마지막으로 내 꿈에 확신을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글을 마무리 짓는다.

부족한 시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시를 쓰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다. 나는 작년 이맘때쯤부터 시를 썼다. 평생 시집 한 권 사서 본 적 없던 내가 시를 쓰게 된 것은 한 교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시를 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시를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시를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나는 조금 충격을 받았다. 지금껏 한번도 제대로 시를 읽은 적이 없었다. 몇 주 후에 그런 부담감을 가진 채 몇 권의 시집을 구입했고, 그 때부터 시에 조금씩 흥미를 갖게 됐다.

시는 어느 한 장면과 감정에 집중한다. 표현의 방법은 제각각이지만, 때문에 가깝찍은 단 한 줄의 문장만으로도 온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는다. 그것은 옛 기억일 수도, 어떤 감정일 수도, 하나의 대상일 수도, 어찌면 그 모두일 수도 있다. 처음에는 그 속에 자꾸만 빠져 들었다. 기억을 해집고, 감정에 침잠하고, 의미 없는 가정을 반복하다

제주문화 위해 ‘문화전문인력’부터 양성을

제주언론인클럽 ‘제주 문화 정체성과 세계화’ 세미나

제10회 제주언론인클럽(회장 이문교) 세미나가 지난달 14일 제주시 연동 더호텔에서 열렸다. ‘제주 문화의 정체성과 세계화’를 주제로 (사)제주언론인클럽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제주 문화의 세계화 모색과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새로운 문화정책의 방향성과 지방문화 발전’ (양현미 상명대 교수), ‘제주 문화의 정체성 전략’ (송상일), ‘제주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담론’ (허남춘)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다음은 송상일 평론가와 허남춘 교수의 발표 요지.

“교불교불 느린 길이 제주적인 것”

제주문화의 정체성 전략

방언은 지방어의 준말이다. 지방은 중앙과 다르고, 제주는 서울과 다르다. 그런 다름이 싫어서 요즘은 ‘지방’ 대신에 ‘지역’으로 쓴다. 이와 같이, 엄연히 ‘있는’ 차이를 말만 바꿈으로써 흐리는 것을 언어학에서는 완곡어법이라고 하고, 정치 경제학에서는 아편(阿片) 효과라고 한다. 과거에는 지방신문이라 했다. 요즘은 지역신문이라고 한다. 지방을 굳



송상일
연론인·문학평론가

이 지역으로 고쳐 쓰는 것은 일종의 열등감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은 지역으로 바뀌 써도 상관없는 그런 낱말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제주어’ 보다 ‘제주방언’을 선호한다. 지방을 지역으로, 제주방언을 제주어로 바꿔 부르는 데는 주류의 일원으로 행세하고 싶은 어두운 선망이 깔려 있다.

지방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다. 오히려 창조의 샘이다. 발터 벤야민이 “역사의 결정적 일격은 항상 원소로 날린 주먹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즉 역사의 창조는 다수자가 아니라 소수자, 중심이 아니라 주변, 중앙이 아니라 지방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문득한 코, 통방울 눈, 붓국이 솟은 벵거지까지, 돌하르방은 하나 하나가 동글동글 큼직큼직하다. 천하장군, 지하장군 등 육자의 장승이 귀면성(鬼面性)을 강조하는 것과 다르게, 제주의 돌하르방은 해학적이다. 그 해학성 때문에 돌하르방은 귀면에서 풍기는 섬뜩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돌하르방의 해학성은 그 동글동글하고 큼직큼직한 생김새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돌하르방 생김새의 그런 특징은 다름 아닌 제주들의 특징, 특히 그 석질(石質)에 기인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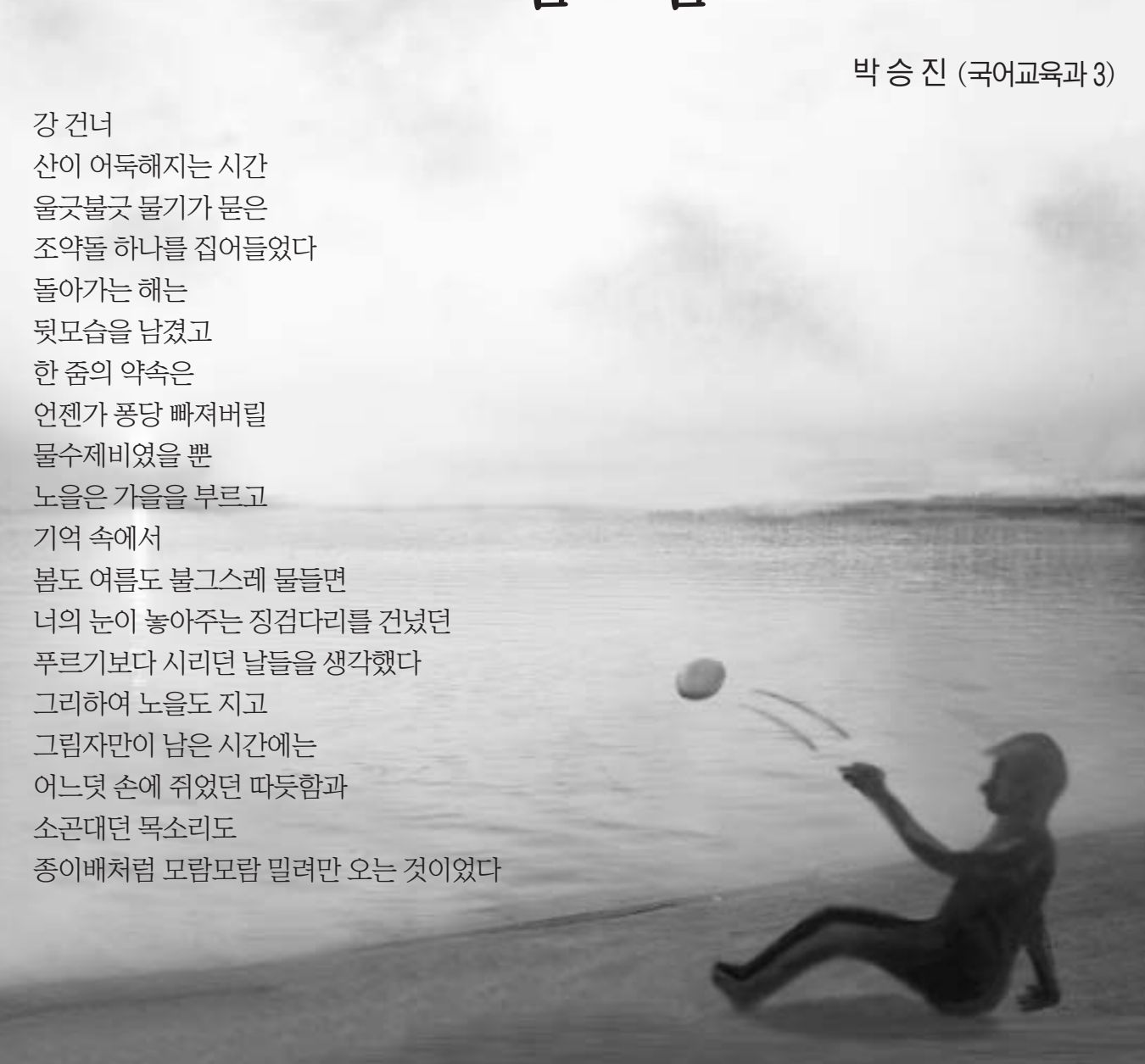
아시다시피 제주의 돌은 대개가 현무암이다. 구멍이 승승 나서 조각을 하기에는 부실한 돌이다. 석질이 그리 양성해서는 정교한 조각이 불가능하다. 옛 장인들은 조각하기에 가장 불리한 제주돌의 바로 그 점을 이용하여 가장 개성적인 돌조각품을 빚어냈던 것이다. 제주돌을 갖고 그리스의 대리석 조각과 같은 상을 빚은 것은 미켈란젤로의 솜씨로도 안 될 것이다. 돌하르방이야말로 제주가 가진 ‘하나의 자질’에 충실함으로써 제주의 정체성을 담아낸, 부분에서 전체를

» 시 가작

모람모람

박 승 진 (국어교육과 3)

강 건너
산이 어둑해지는 시간
울긋불긋 물기가 묻은
조약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돌아가는 해는
뒷모습을 남겼고
한 줌의 약속은
언젠가 풍당 빠져버릴
물수제비였을 뿐
노을은 가을을 부르고
기억 속에서
봄도 여름도 불그스레 물들면
너의 눈이 놓아주는 징검다리를 건넜던
푸르기보다 시리던 날들을 생각했다
그리하여 노을도 지고
그림자만이 남은 시간에는
어느덧 손에 쥐었던 따뜻함과
소곤대던 목소리도
종이배처럼 모람모람 밀려만 오는 것이었다



일러스트=김소영 기자

심사평

시적 상상력과 감정 표현 돋보여

응모된 여러 학생의 시들 중 두 사람의 시, 그 중에서도 각각 ‘발톱을 깎으며’와 ‘모람모람’이 눈에 들어왔다. 이 시들은 다른 시들에서 많이 보이는 감정의 과잉, 장광설, 상투적 표현 등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다. 결국 두 작품 중 하나를 제외하기가 어려워 가작이라는 편법을 쓰기로 했다. 굳이 하나를 택하라면 ‘모람모람’ 쪽이겠다.

‘발톱을 깎으며’는 일상의 작은 행위인 발톱 깎는 일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잘 그려내고 있다. 오랫동안 숙련된 이 행위를 받아 주고 처리해 주는 이는 늘 어머니다. 어머니에 대한 나의 마음이 발톱깍이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전기 뱀장어로부터 어머니의 청춘까지 이어지는 상상력의 전개는 구도가 잘 짜여진 사진 같이 명쾌하다. 그러나, 이것 이외의 것은 할

령한 것들이 많고, 이 작품도 당선작으로 하기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든다.

‘모람모람’도 매력적인 작품이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 읽는 이에게도 물경 전달 되어 가슴을 적신다. 조약돌, 물수제비, 징검다리, 종이배로 이어지는 이미지들이 품고 있는 또다른 의미들, 애이불상(哀而不傷)의 목소리는 커다란 울림을 준다. 이 학생의 시들은 개성적이다. ‘그 날의 모든 일들이 바람을 타고’는 ‘모람모람’과 같이 지난 것들에 대한 허망함을 조금 다르게 변주하고 있다. 이 학생의 특징은 이런 시들에 있는 것 같다. 그 나이에 경험하는 절실한 감정들이 절절하게, 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오랫동안 숙련된 비유와 만나 호소력 있게 다가온다.

나는 심사 후 마신 낮술을 떨쳐 버리려고 하귀 행 버스를 타고 가서 가문동 포구 옆에 있는 초계미술관 창가에 앉아 다시 이 시들을 음미했다. 나도 바다를 향해 돌을 던졌는데, 먼 목소리가 뚝배에 실려 모람모람 밀려왔다.



나기철 시인

실현한 모범사례라고 할 것이다.

제주적인 것을 못 살린 사례들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길(도로)일 것이다. 세계의 명품 도로들은 지나다니기 편한 길이 아니다. 오히려 풍경을 멈추게 하는 길이다. 샌프란시스코 하먼 러시안힐의 롬바드 스트리트가 떠오른다. 꼬불꼬불 아리랑 길로 유명하다. 만일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날 수 있게 땅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이라는 도로의 정의에 따라 이 길을 곧고 웬 한 직선도로로 뽐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런데 제주에 도로를 만드는 당국자, 토목업자들은 바로 그런 식으로 길을 곧고 휘하게 꺾꺾 뽐는 중이다. 도로를 곧고 휘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따른 결과이다. 즉 제주적인 조건을 무시한 결과이다.

“후속세대 위한 문화 비전 마련해야”

제주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담론

최근 한국음악이 세계를 감동시켰다.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젤룰맨이다. 그러나 음악은 미국 음악을 한국에서 재생산한 것 정도의 의의가 있을 뿐, 한국적인 음악 요소는 미미하다. 전통음악에 토대를 둔 현대음악이어야 한국적인 것이라 하겠고, 그것의 성공이야말로 한국문화의 세계화라 하겠다. 그래도 싸이의 성공에서는 한국적 ‘흥’ 또는 ‘신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싸이에게서 한국적인 것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단서 없이는 폭발적 반응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그런 논의를 통해 한국음악에 한국 문화적 요소가 지속적으로 가미되고, 자기 것을 토대로 하여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전통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재크와 콩나루>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천지왕봉놀이>는 모른다. 자기 것은 잘 모르고 남의 것만 아는 천박한 세상이었다. 이제 제주 신화를 가르치고 하늘과 땅의 소통이 지닌 의미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일깨워야 한다. 해와 달이 들어있었는데 해와 달을 하나로 만든 이야기에서 지구의 역사와 인간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 제주 신화에는 우주가 담겨 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제주 신화를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세기 제주도는 ‘세계 섬 문화 축제’를 몇 차례 거행한 바 있다. 물론 실패로 끝났지만 아이디어는 참신했다. 섬의 문화 모두를 끌어다 보여주려 하고, 박물관식으로 전시하는 욕심을 버렸어야 했는데 의욕만 앞섰다. 한 해에 하나의 주제만을 강화하고 특성화하여 10년을 기약한다면 승산이 있다.

첫 해는 세계 섬의 춤, 다음 해는 세계 섬의 노래와 악기, 세 번째는 세계 섬의 어로작업, 이런 식으로 10년을 계획하고, 10년 단위가 지나면 다시 ‘춤’으로 돌아온다면 이 축제에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 우선은 아시아 태평양 섬 위주의 축제를 10년 한 후에 세계 섬축제로 넘어가는 것도 한 전략이다. 좋은 기획과 연출자를 만나고 좋은 스토리텔링을 가미한다면 제주의 축제는 한국과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화에도 성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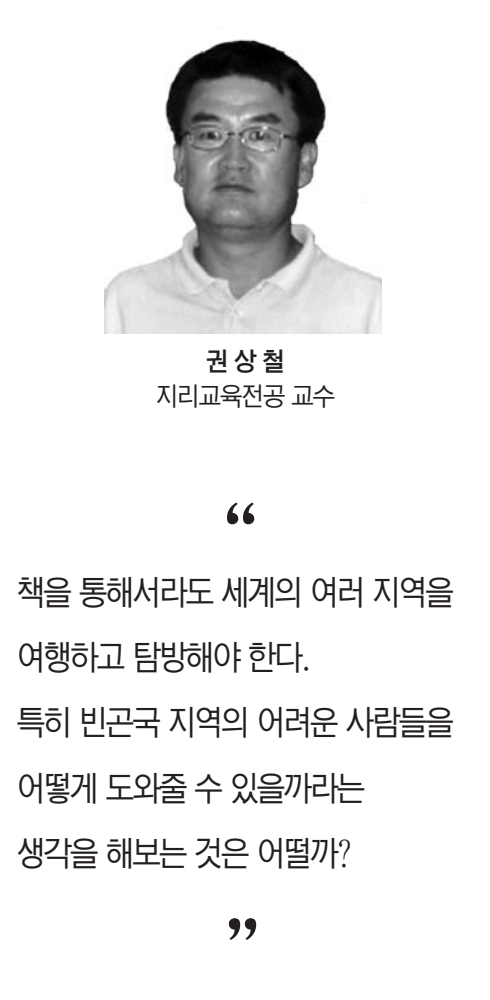
제주의 세계적인 자산인 국과 신화 연구를 위해 제주만의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창조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자 양성이 필수적이다. ‘제주문화연구원’을 만들어 연구자를 키워야 한다. 제주 환경을 잘 지키고 가꿀 수 있는 인재, 제주 문화를 잘 보존하고 새 시대에 맞게 변용할 수 있는 인재, 관광의 마인드를 잘 알아 사람들에게 제주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인재, 전통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시대의 파란을 치유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 제주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제주문화 비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제주학 전문가의 양성을 주장한 것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묵묵부답이다.



허남춘
국어국문학과 교수

교수신문

대학의 여름방학, 무엇을 할까?



권상철
지리교육전공 교수

“

책을 통해서라도 세계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고 탐방해야 한다.

특히 빈곤국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

동문칼럼

시행착오 겪으며 자신의 가치 만들어야



김동호
행정학과 04학번

나는 글재주가 뛰어나지 않다. 남들이 말하는 스펙이 높은 것도 아니고, 얘기만 하면 모두가 아는 그런 회사에 다니지도 않는다. 하물며 지금까지는 실패를 거듭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이상주의자였던 탓에 이런저런 미래에 대한 그림을 참 많이 그렸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외국인 친구를 통해서 유학에 대한, 군대에선 위강홀리데이와 개인사업 등 생각은 수없이 했던 것 같다. 하나 실제로 실행에 옮긴 것은 위강홀리데이 비자로 호주를 다녀 온 것 뿐이다.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려 한다.

갓 전역했을 때, 난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관심

이 있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배우기 위해 여행사에 들어갔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둘 때까지 4개월 정도 근무했다. 보수는 비록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목표가 있었기에 성실히 근무했다. 사장님의 신임을 받으며 신입이 파격적으로 중국에 가이드로 갔다 왔다. 지속적인 근무 권유도 받았지만 그만둘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었기에 사장님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그만두었다.

그만둘 당시 사장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하라’는 글귀가 있었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내겐 제책질이 필요할 때 자극이 된다.

내 힘으로 위강홀리데이를 떠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주차장 아르바이트, 렌트카, 대리운전 등 육도 실택 먹으면서 열심히 떠날 준비를 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처음 계획한 때부터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들과 인연은 내게 소중한 재

포함한 여러 대학, 기관, 기업에서 보내는 탐방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행자, 탐방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누군가를 도와주러 가는 원조자 입장에서 여행도 시도해 볼직 하다는 생각이다.

봉사 여행은 관련 단체에 가입해 그 프로그램을 따라 활동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비용, 시기 등이 여의치 않으면 스스로 지역을 선정하고 저가 항공 요금 비교, 지역문제 등 연구를 단단히 한 후 지역 상황, 주민들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관찰해 보고 나름의 이해와 분석, 그리고 이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각자의 전공을 살려 그 분야에 대한 치밀한 관찰과 조사를 시도해 보고, 대화도 건네 보며 여행자 관점의 신기함과 호기심을 넘어 빈곤 극복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어떤 분야,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하고 시도해 보는 시간을 여름방학 동안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이러한 해외 체험은 젊은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해줄 뿐 아니라 진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한때 세계의 최빈국에 속하는 국가였으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근래 들어 빈곤국을 지원하는 원조국으로 변모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액은 2012년 총 1조8,600억원, 국민

일인당 3만4900원이었으며, 2013년에는 2조411억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국민총소득 대비 0.16%의 비율로 원조국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0.7%에는 아직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외원조액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해외전문 인력, 청년봉사단원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실제 한국국제협력단장은 점진적으로 청년봉사단원의 수를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도 이제 무역, 여행, 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세계의 여러 나라를 거리낌 없이 수시로 방문, 체류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빈곤국에서는 이제 원조의 손길을 주며 이들에게 새로운 친구로 다가가는 나라도 변모하고 있다.

이제 본 제도에 오른 여름방학 동안 무엇을 할까? 여행, 아르바이트, 모자란 공부, 이 중 한가지만 하기에는 아쉬움이 남을 듯하고, 모두 다 하기엔 시간에 쫓길 듯하다.

하지만, 하루에 몇 시간 시원한 도서관 에어컨 밑에서 책을 통해서라도 세계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고, 탐방해야 한다. 특히 빈곤국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면, 오늘이 힘들지만 그래도 뿌듯함과 보다 멀리 보며 계획을 세우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권하고 싶은 책

디아스포라 재일제주인 연구서

<Korean Diaspora>

2010년은 제주도 출신자가 일본 이주를 시작한지 100년이 되는 해였다. 현재 재일(在日)제주인은 2012년 기준으로 재일한인 54만5401명 중 8만6231명으로 약 15.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징병·징용 등 강제적으로 이주(in-voluntary emigration)되거나 해방 이후 제주 4·3사건과 한국전쟁을 피해, 그리고 이주노동자와 출가해녀(出稼海女) 등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들 대부분은 도쿄(東京) 미카와시마(三河島)나 오사카(大阪) 이쿠노구(生野區) 등의 대도시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관동(關東)과 관서(關西)지역을 중심으로 재일제주인의 커뮤니티(communit)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1923년 제주도와 오사카를 잇는 직행항로(直行航路)가 개설되어 기미가요마루(君が代丸)가 취항하면서 공업이 발달했던 오사카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으로 이주한 제주도 출신들 중 남성들은 대부분 조선, 탄광, 토목공사 등에 단순노동으로 투입되었고, 반면 여자들은 주로 방직과 고무공장에서 일하면서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했다.

또한 재일제주인은 이주 초기 자발적으로 이주(spontaneous emigration)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사회·문화적 갈등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본 사회 속에서 자긍심과 애환심, 그리고 상호간 인적교류를 통해 재일제주인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찾고자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일본 이주에서부터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직업을 구하고,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일까지 삶의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활용되었다. 특히 재일제주인 기업가들은 일본 사회에서 초기관철, 시간임수, 성실, 신용, 인내, 인간중심 경영 등을 경영정신으로 삼아 상당한 경영성과를 이룩하여 재일제주인의 자본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생활의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삶보다 고향의 어려운 현실을 더 걱정했다. 이들의 애환심은 마을과 마을을 잇는 교량가설, 도로 확·포장, 상수도, 전화·전기가설, 학교시설, 마을회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고향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1965년부터 1984년까지 20년간 고향에 보낸 감골모목 기증(모목 426만7000본)은 감골재배 농민의 소득 증대와 함께 제주도 감귤산업을 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외에도 이들은 제주도 지역개발을 위하여 십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교육·문화사업을 비롯하여 관광산업·금융·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직접 참여하면서 자본을 투자하였다.

현재 제주도는 재일제주인 1세대의 많은 기증과 투자 활동으로 눈부신 발전을 달성하였다. 제주도의 지역총생산(GRDP)은 1946년 23억원에서 2011년 11조1290억원으로 급성장하면서 1인당 소득도 8만8000원에서 2149만원(2290배)으로 크게 상승했다. 감골생산량은 1946년 10톤에서 2011년 64만8000톤(6만4800배)으로 증가하여 제주도민의 농가 소득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재일제주인의 역활은 제주지역 사회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며 제주도 산업발달과 도민소득 향상에 한 축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고평명(高寶明) 박사가 저술한 『재일(在日)제주인의 삶과 기업가활동』(탐라문화연구소 간행)은 재일제주인의 이주와 삶, 경영활동 특성, 기업가활동(entrepreneurship) 사례 등에 관해 잘 살펴본 저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저자는 지금까지 재일제주인과 제주도와외의 관계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상호 동반적 관계로 생각하기보다는 제주도 출신들이 지역사회에 일방적으로 물질을 제공해 주는 대상으로만 인식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주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본서는 재일제주인의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부 3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재일제주인의 의미와 유형(제1장), 이주 역사(제2장), 인구와 생업(제3장),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제4장), 지역사회 공헌(제5장) 등 재일제주인의 이주와 삶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2부는 재일상공인의 상공업활동 실태(제6장), 경영활동 특성(제7장), 기업가 유형별 특성(제8장), 사회적 배정(제9장) 등 재일제주인의 경영활동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3부는 호텔업, 유기화학공업, 전기전선공업 등으로 제주도의 관광산업, 경제, 교육,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동천(東泉) 김병진(金坪珍)(10장), 고당(古堂) 안재호(安在祚)(11장), 효천(曉泉) 강충남(康忠男)(12장)의 기업가활동 사례에 대해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재일제주인 관련 연구는 이주 역사, 언어, 문화, 생활사 등 역사학, 언어학, 문화인류학, 사회학 분야에서 논문이나 저서 형태로 출간되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재일제주인의 삶과 관련된 기업가활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서는 재일제주인의 삶과 기업가활동을 다른 연구서로서 저자가 논문,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출간하게 된 것이다. 이들 논문들은 각각 집필 당시의 문제의식과 자료조사(문헌조사, 현지조사)에 기초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론적 내용이나 자료처리 등에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점도 없지 않다.

아무쪼록 본서는 비록 통일된 주제로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책의 제목과 성격에 맞추어 부분적으로 내용을 수정하고 일부 통계 등을 추가하여 재일제주인의 경제성과 자긍심, 애환심에 대한 의미를 피력하고자 했다. 비록 완벽한 책은 아닐지라도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 재일제주인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이 본서를 통해 재일제주인의 삶과 기업가활동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재일제주인의 이주와 삶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재일(在日)한인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자기고

‘2013 글로벌 평화 불턱’ 대회 참가기



김일훈
행정학과 4

지난 5월 24일 금요일, 고평명 행정학과 교수님이 주최한 행사인 ‘2013 Global Peace Bultuk 예선 대회’에 참가했다. 행사에는 행정학과 학생들 위주로 다 학과 학생들과 사회과학대학 소속 원어빈 교사, 여행사 직원, 취재

기자 등이 참여했다. 물론 대다수가 한국인이었지만 중국인 유학생, 일본인 유학생, 러시아 유학생, 미국 원어빈 교수까지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로 행사의 질과 품격을 더했다.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해 모슬포항까지 40~50분이 걸려 도착했다. 모슬포항에 도착한 우리는 배에 탑승했다. 배 시설이 좋고 깨끗하여 편안하게 이용했고 배 난관에서 모슬포 앞바다를 구경하는 것이 하나의 묘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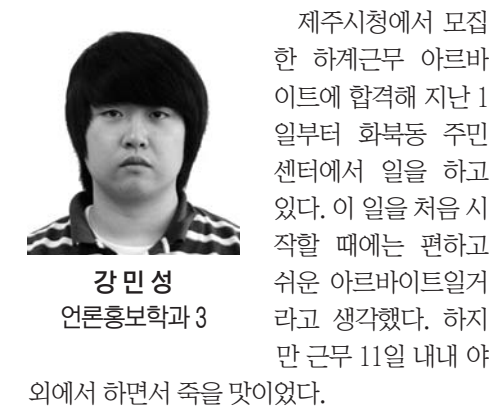
20분간 배를 타고 가파도에 도착했다. 난생 처음 가파도의 땅을 밟은 나는 모든 것이 신기했다. 가파도에는 우리 일행 말고도 관광객들이 많았다. 우리 일행은 마을 중심으로 걸어 올라갔다. 가파도의 마을은 작고 평화로웠다. 돌담길을 따라 양쯔강은 집들을 구경하며 걸어 올라갔다. 가파도 곳곳을 구경하다보니 보리밭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파도는 ‘정보리 축제’로 유명하다. ‘가파도’하면 ‘정보리 축제’를 연상하곤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갔을 때에는 그 정보리들이 익어 황보리가 되어 있었다. 그래도 황보리밭이 널리 펼쳐 있어 좋은 구경을 했다. 그리고 가파초등학교 옆을 지나게 됐다. 가파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0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로 학교 건물은 아담하지만 보기 좋게 지어져 있었고

잔디운동장이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했다. 나는 심플하고 신기한 학교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보았다.

드디어 우리는 행사 장소에 도착하였다. 돌담이 동그렇게 둘러싸이고 가운데는 움푹 파인 그런 실외 공간이었다. 이 곳은 ‘불턱’이란 장소로 과거 해녀들이 물질을 마치고 움푹 파인 곳에 장작불을 피워 둘러앉아 물에 젖은 옷과 몸을 말리고 ‘불턱’에 모인 해녀들끼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장소이다. 공적인 이야기도 여기에서 하였다고 한다. 어찌 보면 ‘불턱’은 민주적 장소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장소에서 발표자는 가운데로 나왔고 청강자들은 그 주위를 둘러앉아 돌담에 몸을 기대어 발표를 들었다.

발표는 총 6개팀으로 한국 학생 3개팀, 중국 학생 1개팀, 일본 학생 1개팀, 러시아 학생 1개팀으로 환경에 대한 영어발표를 했다. 날씨도 덥고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지 못해 효과적인 발표가 되지는 못했지만 ‘불턱’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발표한 신선한 발표였다. 행사는 행정학과 미국 원어빈 교수에 심사로, ‘2013 Global Peace Bultuk 예선 대회’가 끝났다.

‘2013 Global Peace Bultuk 예선 대회’는 교육적인 취지의 대회였지만 이와 달리 나에게 는 공부나 현실에 지친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풀 수 있는 좋은 여행이 되었다. 이번 가파도 대회의 발표를 듣고 환경에 대해 많은 것을 느꼈고, 가파도의 아름다운 경치에 감동을 받았다. 교육을 받고, 부담 없이 휴식을 하며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교육 행사들이 제주대학교에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음 행사에도 개인 시간을 내서 꼭 참여 할 계획이다. 다음 여행도 기대된다.



강민성
언론홍보학과 3

제주시청에서 모집한 하계군무 아르바이트에 합격해 지난 1일부터 화북동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편하고 쉬운 아르바이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근무 11일 내내 야외에서 하면서 죽을 맛이었다.

아르바이트를 야외에서 하는 이유는 쓰레기 줍기, 클린하우스 모니터링, 쓰레기 단속 등이었다. 항상 야외활동을 통해 보는 것은 길거리의 쓰레기들과 만신창이의 클린하우스였다. 솔직히 그것들을 치우면서 ‘아 짜증난다’와 ‘굳이 이렇게까지 무작정으로 버려도 되나?’라는 생각이 주를 이었다. 평범에서 쓰레기통의 문을 열면 인상은 찌푸러지기 일쑤였다. 이렇게 11일 동안 일을 하면서 느낀 이야기를 써보고자 한다.

화북동 주민센터에 첫 출근을 하자마자 듣는 이야기는 쓰레기에 관한 이야기였다. 화북동에는 1년부터 35번까지의 클린하우스가 있고 거처대는 13군데, 쓰레기통만 비쳐된 곳이 71개소(공동주택단지 49개소 포함)나 된다. 3일 단위로 잘리는 그것들을 돌면서 수소를 확인하는데, 잘 버리가 돼 있는 곳은 소수였고, 대부분 무차별적으로 버려져 있거나 분리배출은 안 돼 있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신고해 버려야 하는 쓰레기들도 클린하우스 앞에만 무단으로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돈이 들기 때문에 밤중에 몰래 버린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주민

킬 수 있다. 처음에 눈앞이 캄캄했던 일도 시간이 지나고 하나씩 일을 진행하다보면 분명 길은 생긴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면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로의 여행이라도 계획하고 돈을 벌어 보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을 것 같다. 시간이 아깝고, 돈이 없고 등의 핑계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무엇인가 시행착오를 겪고 나름대로의 성공을 만들면서 내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제 내가 누군가 내 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가만히 지금의 일만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버리는 것은 없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순서가 있는 법이다. 대학에서 사회로 쉽게 점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대학 생활은 단지 그 자체만으로 계단이 되어주지 않는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프로들의 세계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느냐 도태되느냐는 자신에게 달려 있다. 바빠져라. 인생에 답은 없다.

알바를 통해 본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

들은 그 쓰레기를 안 치운다고, 못살겠다고 민원을 낸다.

그것들을 치우면서 온 몸은 땀범벅이 되고, 옷들은 먼지로 뒤덮히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주민의 식에 대한 깊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다. 문제는 나하나 쪼마라는 잘못된 의식이다. 사람들이 각자 그 생각을 하고 귀찮아서든 아니면 쓰레기 양이 너무 많아서든 간에 무차별적으로 클린하우스에 내다 버린다. 그러면서 쓰레기는 점점 쌓여가고, 치워달라는 민원은 들어오고 그럼 계속 쌓여진 쓰레기들은 공무원이 가서 치워야 하는데,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을 거듭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과정을 끊을 수 없을까?

물론 주민센터에서도 이 사슬을 끊으려는 노력은 한다. 바로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은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을 주시해 과태료를 물리는 일이다. 11일 근무를 하는 중 6번은 적발된 것 같았는데 버리는 쓰레기 종류들을 보면 가관이다. 1회용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찜금까지 모든 쓰레기들을 종량제 봉투도 아닌 그냥 일반 비닐봉지에 사서 클린하우스에 내다 버린다. 더 웃긴 것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민센터 직원 분들에게 오려려 큰 소리를 친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는데 왜 자기한테만 그러냐고, 난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표방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단계 상태이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의식은 그대로고 문화만 발달하는 문화지체현상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주민들도 의식을 바꿔서 ‘나 하나 좁은 관철겠지’, ‘밤중에 무단투기하면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나라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주민의식을 함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평화의 섬으로 가는 길 - 오키나와를 가다 <6>끝>

평화는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군대가 있는 곳은 공격받는 곳… 오키나와 전투에서 군대는 주민 지키지 않아”

오키나와의 현실에서 제주4·3과 강정 해군기지의 교훈 얻어야

사탕수수밭의 슬픔

연재를 마치면서 우리는 사탕수수 밭을 서성이던 시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오키나와의 슬픔을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기억이었다. 3일째 되는 날, 취재팀은 민속촌인 류큐무라에 들른 후에 요미탄촌으로 향했다. 길게 철책으로 이어진 미군 기지를 지나 사탕수수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치비치리 동굴로 갔다. 계곡 같은 곳으로 내려가니 민간인들이 숨었다가 희생된 동굴이 있었고 추모비와 안내문 등이 있었다. 목시물굴, 큰네펜, 다랑쉬굴 등 4·3 유적지가 곧바로 연상되었다.



사탕수수밭 노래비. 주변에 사탕수수밭이 있고 전방에 미군이 상륙했던 바다가 보인다.

이어서 우리는 ‘한의 비’를 찾으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안내하는 분도 그곳을 잘 몰랐다. 어쩔 수 없이 다음 행선지로 가려다가 노래비를 안내하는 표식을 보게 됐다. 사탕수수밭 사이로 들어가니 바다가 보이는 너른 들만에 설치된 조형물이 보였다. 확인해 보니 ‘‘사탕수수밭」노래비」였다. 테라시마 나오히코가 작사·작곡한 이 노래는 오키나와 전투가 끝난 후 한 소녀가 전사한 아버지를 찾아 사탕수수밭에 가서 바람소리를 들으며 슬픔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2003년 이 곡을 모티브로 한 TBS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조형물은 작년 4월에 세운 것이었다. 가까운 곳에 바다가 보이는, 사

탕수수밭에 둘러싸인 그곳에서 바람을 맞으며 서 있노라니 오키나와의 슬픔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했다. “좌아아 좌아아 좌아아 넓은 사탕수수밭은/좌아아 좌아아 좌아아 바람이 빠져나갈 뿐/오늘도 멀리 바라보는 끝에 푸른 물결이 넘실거려요” ‘철의 폭풍’이라는 작전 속에 바다로 쳐들어오는 미군의 모습,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본군의 모습,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서 희생당하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제주도보다 좁은 이 섬에서 20만이 넘는 인명이 희생되었다는 기막힌 일을 생각하노라니 눈물을 참기 힘들었다. 그곳에서 나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아메리카 빌리지 쪽으로 이동하는데 계속해서 짹짹 소리를 지르며 여러 대의 미군기가 떠올랐다. 과연 전쟁은 끝났는가. 아쿠타가와상 수상작가 메도루마 손(目取潤後)이 왜 “오키나와 전후 제로년”이라고 말하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전쟁은 끝났을까

우리가 오키나와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군사기지의 실상은 상상 이상이였다. 오키나와 본섬의 20%가 미군 기지일 뿐만 아니라, 그 기지는 대부분 논 논저위 땅을 점하면서 도심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기지 인근에서는 군용기 사고, 장갑차 사고, 성범죄 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었다. 1945년에는 680만발의 총탄 속에 절반 가까운 주민이 희생되었지만, 오늘날에도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가데나 공군기지 앞을 지나면서 한 무리의 시위대를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오스프리 수송기 배치반대를 외치는가 하면, 미군 병사기탄 차량을 향해 계속해서 “고 홈”을 외쳐대고 있었다. 제주도를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60대 남자는 “제주도의 강정과 연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위대에는 노인들이 많이 있었다. 후손들에게는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난 땅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다. 오키나와는 군사적 요충지여서 일본 자위대도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일본 정부와 방위청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대 테러전쟁’에 대응하려는 방법의 하나로 자위대를 미군의 지휘 아래 활동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현재 오키나와 남부 지역에는 자위대 기지가 많이 들어서 있다. 1945년 전투 당시 “미군 병사보다 일본군 병사가 무서웠다”는 증언도 있듯이, 일부 주민들은 일본 자위



평화기념공원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희생자 각별비를 촬영하는 취재팀(위), 자위대 기지의 전투기(왼쪽), 가데나 기지 앞에서 ‘고 홈’을 외치는 노인(오른쪽).



대의 존재도 마땅치 않게 여긴다. 어떤 전쟁도 아름다울 수는 없는 것처럼 어떤 군대도 평화를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군대가 있는 곳이야말로 공격을 받는 곳이며, 막상 전쟁이 터지면 군대는 주민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키나와 전투가 증명했다는 것이다. 메도루마 손도 『오키나와의 눈물』(윤형순 번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대가 국민을 지켜줄 거라는 환상을 나는 결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미군기지 반대 운동으로 위

기를 느낀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가 처한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지반대의 합성을 무너뜨리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주된 수단은 기지 관련 보조금과 진흥책이었다. 그래서 일부 오키나와 사람들은 기지가 없으면 살 아갈 수 없다고 강변한다.

오키나와와 제주는 다르나

이와 관련하여 류큐대학의 카미야 토모야키 교수는 “오키나와는 기지가 들어와서 아주 긴 시간이 지났다. 기지와 오키나와의 경제적 긴밀성이 강하다. 그래서 당장 나가라고 하기

가 어렵게 된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제주도의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지금 나가라고 하라. 들어오지 말라고 하라. 시간이 지나면 추방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1945년의 오키나와와 오늘날의 오키나와, 제주4·3과 강정해군기지가 다른 것인가? 민군복합항이라는 이름을 내세운다고 군사기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과연 평화는 무엇으로 지킬 수 있는가? 우리 취재팀이 이번의 해외기획을 통해 독자들에게 던지는 물음이다. 김동윤 교수(본사 주간)



제주대학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주의소리와 함께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의 명강사를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 열리는 JDC 대학생 아카데미는 1학기의 경우 6월 11일까지 모두 11번의 강좌와 발표대회, 현장체험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창의성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

창의적인 리더의 뇌

송 인 혁 / TEDxSeoul 오거나이저

경북대 컴퓨터학과 학사 및 KAIST 전산학과 석사를 마친 후 삼성전자에 입사해 8년간 근무했다. 처음 국내에 테드를 들어온 것은 TEDxSAMSUNG이었다. ‘TED’ 컨퍼런스는 지식공유 네트워크로 사회, 경제, 문화, IT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강연 또는 SNS를 통해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TEDx란 형식으로 다양한 강연과 이벤트를 개최하며 각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지구촌 지식 나눔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마름이 세상을 바꾼다** ‘메트로놈 이펙트’란 말이 있다. 동일한 속도의 메트로놈 다섯 개를 서로 다른 시점에 켜놓으면 한동안은 각자의 박자대로 움직인다. 이것을 얹은 판 위에 올려 놓으면 금세 같은 박자에 맞춰진다는 것이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능력이 제각각이지만 같은 판 위에 올라서면 결국 똑같아진다.

2007년 애플에서 아이폰을 출시했다. 전 세계의 반응이 뜨거웠다. 삼성으로서는 당장 새로운 판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됐다. 미국은 우리와 무엇이 다르기에 애플,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는 걸까. 조금만 잘해도 억만장자가 되고 내로라하는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왜 회사에서 커피조차 못마시게 하는 것인지 이유를 심각하게 고민했다. **굴머리를 잃던 내가 상사를 졸라 2주 휴가를 받아 미국으로 갔다.** 실리콘밸리에서 직접 답을 얻기 위해서였다. 미국 현지에서 ‘도대체 뭘 해야 할까’,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무기력감이 엄습해 왔다. 그러던 중 한 회사에서 인생을 뒤바꿔놓은 사건을 맞닥뜨렸다. 견학 회사직원들이 모여 맥주를 마시는 피자파티에 참석했다. 직원들이 회

근후 일주일간 있었던 고민을 공유하거나 각자 생각하는 사업 모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였다. 그 현장에서는 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들이 오고갔다. 파티에서 사람들간의 관계와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며 정서적 교류와 관심 네트워크를 만드는게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었다. **‘정보’가 아니라 ‘인연’ 중시** 사람에게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된다. 바야흐로 ‘정보의 시대’가 아니라 ‘인연의 시대’이다. 남들이 뭐하느지 몰랐을 땐 대중에 나를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이제는 다르다. ‘저거 괜찮은 거 같은데’, ‘나도 읽고 싶은데’라고 주저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이 이야기들을 하다보면 끼리끼리의 관심이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서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진다. 예전에는 광고를 통해 ‘이거 사십시오’하면 팔렸지만 이젠 이런 광고는 안 먹힌다. 어쩌면 애플은 이미 이 같은 흐름을 예견했는지도 모른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는 기계가 아니다. 사람들 간의 관심사를 연결하는 도구이다. 사람들 각각의 관심사에 그들간의 연결이 이어져야 변화도 일어난다.

창의력과 혁신의 공통점은 ‘연결’ 10대에는 죽어라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믿었다. 막상 대학생이 돼서도 좋은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스펙을 쌓는다. 힘든 과정과 경쟁을 뚫고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면 밤낮없이 일만 하다 때가 되면 연퇴를 한다. 이것이 라이프사이클이라고 믿었다.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Give & Take)’가 아니라 ‘기브 앤 리치(Give & Reach)’다. 인생은 단계별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얻는 것이다. ‘자기만의 노하우’로서는 더 이상 큰 가치를 얻을 수 없다. 내가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퍼뜨려야 한다. 누구나 창의력은 경력도 학력도 이긴다고 이야기 한다. 오랫동안 개인의 능력이라고 여겨왔던 창의성의 비밀은 바로 ‘사람과 사람의 연결’에 있다. 그 가치도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한다. 이것이 곧 생각과 생각의 연결이 되고, 혁신이 되는 것이다. 창의성과 혁신의 공통점은 바로 ‘연결’이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다면 그 결과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즉 꿈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에 닿는 것. 진정한 삶은 관계에서 얻을 수 있다.



“개인의 능력이라고 여겨왔던

창의성의 비밀은 바로

사람과 사람의 연결’에 있었다.

그 가치도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했다.”

사에 입사하면 밤낮없이 일만 하다 때가 되면 연퇴를 한다. 이것이 라이프사이클이라고 믿었다.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Give & Take)’가 아니라 ‘기브 앤 리치(Give & Reach)’다. 인생은 단계별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얻는 것이다. ‘자기만의 노하우’로서는 더 이상 큰 가치를 얻을 수 없다. 내가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퍼뜨려야 한다. 누구나 창의력은 경력도 학력도 이긴다고 이야기 한다. 오랫동안 개인의 능력이라고 여겨왔던 창의성의 비밀은 바로 ‘사람과 사람의 연결’에 있다. 그 가치도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한다. 이것이 곧 생각과 생각의 연결이 되고, 혁신이 되는 것이다. 창의성과 혁신의 공통점은 바로 ‘연결’이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다면 그 결과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즉 꿈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에 닿는 것. 진정한 삶은 관계에서 얻을 수 있다.

더 큰 대한민국-생각의 틀을 바꾸자

윤은기 / 서울고려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1980년대에 작지만 강한 나라, ‘강소국’이 되자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요즘은 ‘더 큰 대한민국’이라고 말한다. 이는 국토의 한계를 뛰어 넘는 개념이다. 경제영토는 그 나라의 무역규모를 통해 얘기한다. 문화영토는 특정 나라의 문화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퍼뜨리냐에 달려 있다. 싸이의 한류 바람 덕분에 단군 이래 우리의 문화영토는 가장 넓어졌다. 얼마 전 우연히 읽어 본 책의 제목에 깜짝 놀랐다. ‘성공한 나라 불행한 국민’이라는 책이었다. 국력이 신장되고 국격도 높는데 정작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다.

성공한 나라 불행한 국민 우리나라는 경제는 물론이고 한류로도 잘 나가고 있다. 개국 이래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다. 전 세계 어디서든 대한민국은 어찌 먹고 산다. 성공한 나라인데도 국민에게 행복하다고 물으니 아니라고 한다.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하는 유일한 나라, 올림픽 금메달 5위, 국가 신용등급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 1인당 소득 전세계 8위, 영국 이코노믹스에서 예측한 순위로 ‘2030년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8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정반대다. OECD국가 중 32위로 최하위권이다. 국민들은 불행하다.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개인의 행복은 정부가 모두 책임지지 못한다. 개인의 행복은 개인이 만들어야 하는데, 스스로 가꾸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국민이 행복하려면 두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사회, 치안, 보건을 책임지고, 개인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 우리나라가 사회봉사와 기부금 등을 종합해 점수를 내는 ‘세계나눔지수’는 전세계 45위에 그쳤다. 아프리카의 가나와 수단과 같은 순위다. **봉사와 나눔이 곧 행복, 기부문화 활성화**

우리 국민들도 ‘헬퍼스 하이’(Helper’s High)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때이다. 조 건 없이 남을 도와줄 때 느끼는 행복감이다. 할리우드의 톱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내가 번 돈에 1/3은 나를 위해 쓰고 1/3은 가난하고 힘든 이를 위해, 지금 쓰고 1/3은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안젤리나 졸리는 왜 그 많은 돈과 시간을 남을 돕는 데 투자할까. 이를 통해 무한한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복유림의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를 직접 체험해보니 그 나라 국민들은 복지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봉사와 기부가 몸에 뱌다. 조건 없이 남을 도왔을 때 느끼는 행복감을 어릴 때부터 알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민국 최고의 CEO들을 모아놓고 최고경영자 과정을 진행하면 성공하는 이들은 남을 도우며 사회를 이롭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감과 자긍심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민총생산지수는 물질적, 생산적 효용성 등을 따진다. 요즘 시대는 다르다. 먹고 살만해지면 패전, 디자인, 문화, 아트로 관심사가 바뀐다. 국민총행복지수는 심리적인 요인이다. 만족이나 공정 등의 요인으로 측정한다. 국민총매력지수 역시 심리적이다. 예술과 문화가 척도다. 시대가 달라지면서 노동의 개념도 바뀌었다. 마음고생 시대다. 농사짓고 벼를 나르던 육체노동에서 정보, 지식, 기술을 활용하는 정신노동으로 바뀌었다. 최근엔 도 바뀌었다. ‘감성 노동’이다.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 소통이고 머리와 머리를 연결하는 건 두통이다. **3력이 바로 성공의 DNA** 자신의 실력만으로 성공을 결정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3력’이 있어야 하는 시대다. 실력에 담력, 매력까지 있어야 한다. 실력이 비슷할 땐 담력이 센 사람이 이긴다. 팽팽한 경기에서 누가 더 용감하고 침착하며 긴장감을 이겨낼 수 있는가가 승패의 중요 요인이다.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는 게임이 안 된다. 담력이 다르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 담력 면에서 이미 최강이다. 다음으로 매력이다. 매력은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



“합심은 팀워크이며 소통이다.

개인주의를 넘어 우리의 목표를

이해하고 감독의 뜻을 살리고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작품이 나온다.”

이다. 아릅답고, 당당하고, 밝아야 매력적이다. 우리 선수들은 표정도 밝고 말도 시원 시원하게 한다. 게다가 멋도 낼 줄 안다. 이제 실력, 담력, 매력에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다. 인간은 타고난 잠재능력의 백분의 일도 쓰지 못하고 가는 존재이기에 뜨거운 마음으로 매진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다. 세계적인 최고 CEO들의 공통점도 바로 이 열정이었다. 합심은 팀워크이며 소통이다. 개인주의를 넘어 우리의 목표를 이해하고 감독의 뜻을 살리고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작품이 나온다. 라오스처럼 모두가 가난해서 행복지수가 높은 곳이 있는 반면 선진국형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부유하면서도 공정성, 사회 정의, 법질서, 봉사 기부하며 사는 나라다. 우리나라가 선진국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상생’이 필요하다. ‘내게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고, 사회에도 좋은가?’ 이 세 개가 충족돼야 진정한 상생이다.